

12

December 2023
Vol.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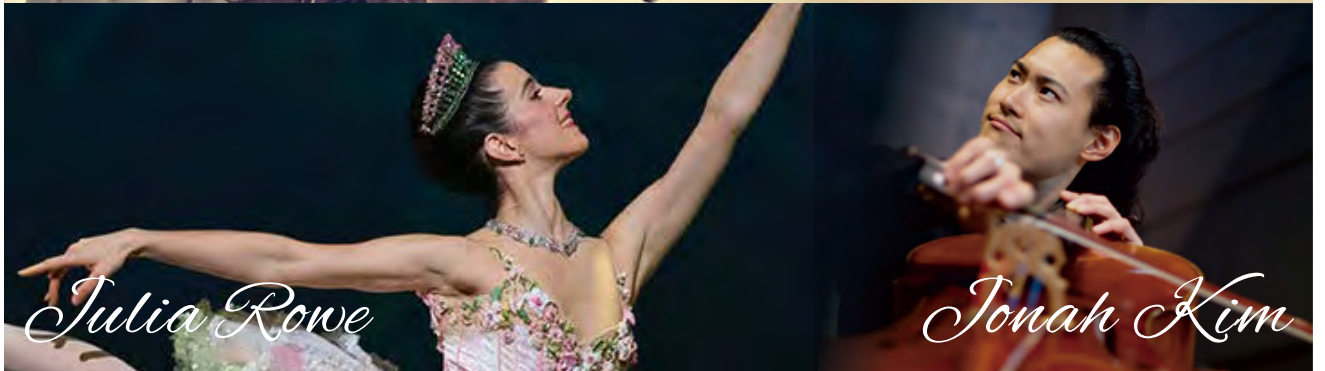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LUMN
세계유산 가야와 가야금의 긴 여운

COVER STORY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클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국립부경대학교와 함께하는 BSO솔로이스츠 비발디 & 피아졸라

Vivaldi & Piazzolla



진혜빈
Hye-Bin Jin



박은경
Eun-Kyung Park



리더
김주영
Ju-Young Kim



한유진
Yoo-Jin Han



진건혜
Geon-Hye Jin



오근영
Gwon-Young Oh



황재운
Joe-Yoon Hwang

예술감독 오충근(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

협연 김주영

진혜빈 박은경 한유진
진건혜 오근영 황재운

연주 BSO솔로이스츠(리더 김주영)

해설 류태형(음악평론가)

PROGRAM

비발디 사계
A. Vivaldi The Four Seasons from Violin Concerto Op.8, Nos.1-4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A. Piazzolla The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2023. 12. 08. Fri 오후 4시
국립부경대학교 대학극장

주최 BSO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메세나협회

특별후원 국립부경대학교 12월 송월타을 · 송월우산

2023 World
PIANISTS

World EXPO 2030
BUSAN, KOREA

KRYSTIAN ZIMERMAN

P I A N O R E C I T A L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주관  mast media

티켓 R석 17만원 | S석 13만원 | A석 10만원 | B 7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interpark 티켓 1544-1555

2023. 12. 27 WED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3 을숙도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소향과 함께하는 국향만리



가수 소향



지휘 흥희철

2023.12.13 WED
PM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테너 김지호



소프라노 이진영



사회적협동조합 문화공장



CHRISTMAS CONCERT WITH CHO SEONG-MO
**조성모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CHRISTMAS CONCERT WITH CHO SEONG-MO

2023.12.23. | 토 | 오후 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지휘 홍희철

Singer
조성모



트럼펫 드미트리 루카렌코프



소프라노 왕기현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테너 이우정



베이스플루트 박순기



오케스트라 Ari-클래식

2024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 단원모집

열 번째 여는 2024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 단원모집

이 연주회는 사)승인문화재단(이사장 변원탄)에서 기획하는 연주회입니다
'행복한 남성들의 즐거운 합창'이라는 타이틀로 합창을 사랑하는 남성들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 2회 한 달간 연습하고 연주회를 가집니다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김강규 지휘자와 함께 즐거운 합창을 합니다

프로그램 가요, 가곡, 성가곡 등 다양한 연주 프로그램

2024. 1. 27 (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주일시, 장소)

지휘자 김강규

단장 변원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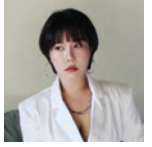


JAZZ ON THE BREEZE 김철편트 밴드 초청공연

피아노 김상수
드럼 김경민
베이스 안요한
색소폰 문치치
첼로·보컬 김철편트



GUEST



보컬 이예인



기타 송지현



영도문화예술회관 공연장

KIM CELLO BAND CONCERT 2023. 12. 15^{FRI} 7:30PM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

주최·주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일반 1만원, 정기회원 7천원, VIP회원 5천원 예매 영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문의 051-419-5571~4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V.O.S & J.CERA 2023 ADIEU CONCERT

2023. 12. 27. (수) 19: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주최 영도문화예술회관 주관 영도문화예술회관 더야무진 입장료 일반 4만원, 정기회원 3만원, VIP회원 2만원 예매 영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예스24 문의 051-419-5574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육성프로젝트

디딤
&
Step

2023.12.8

FRI 20:00

2023.12.9

SAT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김미란의

WE 위로
路

수상작컬렉션

예술감독 이정운 안무 김미란 댄서가 말하다 김지윤 손상진 박정원 김하림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전석 2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ARS 1번)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부산시립무용단



을숙도문화회관 | 미켈란젤로와 음악의 만남


아트클래스

- 시리즈 III -

전원경의 “미켈란젤로 : 영웅의 탄생”

영화와 클래식 명곡의 장르융합과 재미있는 미술사 해설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공연·교육 프로그램

2023. 12. 18. | 월 | pm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주관  을숙도문화회관 예매 을숙도문화회관 (예매시 20%할인)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문의 051.220.5822 / 전석 10,000원 /



SUN	MON	TUE	W
<p>예매</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정기회원(유료회원) 초대권 온라인 예매로도 가능!!</p> <p>전화로만 가능했던 정기회원 초대권 예매가 이제는 온라인 예매로도 가능합니다.</p> <p>- 온라인 오픈: 2023년 12월 5일 *2024년 상반기 기획공연부터 적용 - 사용방법: 결제방법 선택-쿠폰/예매권 선택-쿠폰사용 ※ 상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참조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전시실</p> <p>제49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11월 14일(화)-12월 2일(토) • 문 의 : 부산미술협회 632-2400</p> <p>부산시 학생문화공연 관람지원 '어릴적에' 매칭데이 12월 6일(수)-12월 7일(목)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2</p>	<p>제41회 대한민국미술 12월 9일(토)-12월 10일(일) • 문 의 : (사)한국한</p>
<p>3</p> <p>부산플루트 앙상블 제29회 정기연주회 17:00 챗 전석 1만원/부산플루트앙상블(010-2459-4147)</p>	<p>4</p>	<p>5</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2회 정기연주회 '볼프강'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국립오페라단 초청 신 '오페라 여행'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3년 정준수 첼로 독 챗 전석 2만원/Kongna</p>
<p>10</p> <p>제10회 부산진구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레퀴엠' 17:00 대 초대/부산진구 남성합창단(010-2579-0426)</p> <p>김승연 플루트 독주회 17:00 챗 초대/지음아트(010-3146-8434)</p>	<p>11</p>	<p>12</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3회 정기연주회 '2023 송년음악회'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최동욱&김혜선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9:30 챗 최동욱(010-8225-8719)</p>	<p>1</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미안성 음악회'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7</p> <p>김종완 반도네온 작품발표회_IN/EX-HALE '숨' 17:00 챗 전석 1만5천원/김종완(010-7171-2834)</p>	<p>18</p>	<p>19</p> <p>이강현 첼로 리사이틀 19:30 챗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2</p> <p>이일세 첼로 리사이틀 'M' 19:30 챗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24</p>	<p>25</p>	<p>26</p> <p>정전 70주년 기념 유엔평화 콘서트 '위대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노래' 19:30 대 유엔평화기념관(901-1407)</p> <p>투바 듀오 리사이틀 창단연주회 19:00 챗 투바 듀오(010-5675-0644)</p>	<p>2</p> <p>(재)부산문화회관 월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19:30 대 17만원-13만원-10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6회 김남진피지컬씨어터 19:00 중 전석 3만원(마성년자) 김남진피지컬씨어터(010-5675-0644)</p>
<p>31</p>			

ED	THU	FRI	SAT
대상전 6일(토) 현대미술협회 644-0005		1 BS부산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오페라 아리아의 밤' 19:30 대 7만원·5만원·4만원·3만원 / 부산문화(1600-1803)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21:00 중 전석 1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 2023 청년희망날개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17:00 대 전석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구·군 여성연합합창 페스티벌 17:00 중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010-3578-1994) 에클라 피아노 트리오 '음악의 거장들 The Greats 3B' 17:00 첼 초대/에클라 피아노 트리오(010-8272-5306) 2023 문화예술교육축제 10:00 사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6 예성악가와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607-6000) 주회 19:30 amul(010-6550-6971)	7	8 2023 부산솔리스트양상블 정기연주회 19:30 대 부산성악가협회(010-9298-7949)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_ 디딤&STEP '김미란의 위로 We-路' 20:00 중 전석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김현정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첼 전석 2만원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9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순국선열을 위한 추모음악회 '레퀴엠' 17:00 대 전석 1만원 / 유엔평화기념관합창단(010-2962-1124)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_ 디딤&STEP '김미란의 위로 We-路' 17:00 중 전석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3 장애예술인 초청공연 '행복한 동행, 모두의 예술' 15:00 첼 무료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 희음악회 '부산시향의 문화회관(607-6000) 피아니스트 김민정의 콘서트:amor fati 19:30 첼 전석 2만원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6회 정기연주회 '영웅의 생애'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피아니스트 김민정의 콘서트:amor fati 19:30 첼 전석 2만원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렛미플라이' 19:30 중 6만원·5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김나래 귀국 플루트 리사이틀 19:30 첼 전석 2만원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6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17:00 대 3천원·2천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렛미플라이' 15:00 중 6만원·5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We Music Artists 창단연주회 19:30 첼 초대/박영미(010-2850-3308)
0 Modern Times' 19:30 코리아(442-1941)	21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고연경 바이올린 독주회 19:00 첼 (취아트엘)(010-9110-8683)	22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벚꽃동산' 19:30 중 3만원·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아나책 스트림 콰르텟 초청연주회 19:30 첼 7만7천원·5만5천원·3만3천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3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15:00,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벚꽃동산' 15:00 중 3만원·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국제장애인협회 시낭송 10:00, 14:00 첼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949-2411)
7 드 피아니스트 시리즈III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원·7만원 7-6000) 터 정기공연 'Nude nude' 관람불가) 010-9316-7894)	28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유코와 함께하는 아듀 2023' 19:30 대 10만원·7만원·5만원·2만원 UKO(010-5468-4658, 010-3589-3111) 제1241회 MBC 목요일음악회 19:30 첼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760-1494)	29 임태경과 KNN방송교향악단의 특별한 송년음악회 19:30 대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KNN방송교향악단(850-9568) 조갑용의 관여는 소리 19:30 중 전석 2만원 / 영남성주조소리보존회(010-6520-9376)	30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3개의 피아노협주곡' 17:00 대 11만원·9만원·6만원·3만원 두남재엔터테인먼트(02-6292-9368, 9370) 에델현악사중주단 2023년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와 겨울을 위한 클래식' 17:00 첼 전석 2만원 에델현악사중주단(010-5880-3996)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공연</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전시실</p> <p>보령남포 명연 특별전 11월 28일(화)-12월 3일(일) 전시실1</p> <p>아름다운 규방공예 '고운손길전' 11월 28일(화)-12월 3일(일) 전시실2</p> <p>2023 한국서도예술협회 회원전 12월 5일(화)-12월 10일(일) 전시실1-2</p> <p>알그림미술연구회 동문미술전 12월 12일(화)-12월 17일(일) 전시실1</p>	<p>부산전각가협회 창립10주년 기념 특별전 12월 19일(화)-12월 24일(일) 전시실1</p> <p>최일용 개인전 12월 19일(화)-12월 24일(일) 전시실2</p> <p>대한불교사진가회 회원전 12월 26일(화)-12월 29일(금) 전시실1</p> <p>·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p>	
<p>3</p> <p>제6회 부산중구 시니어 코러스 정기연주회 15:00 대 부산중구 시니어 코러스(010-3936-7757)</p>	<p>4</p>	<p>5</p>	<p>2023 MY MBC 콘서트 19:30 대 부산MBC(760-112)</p>
<p>10</p> <p>NEW 뮤지컬 신비아파트 '붉은 눈의 저주' 11:00, 14:00, 16:30 대 전석 6만6천원/인터파크 티켓(1544-1555)</p> <p>뮤지컬 '샤스타 데이지' 15:00 소 영산대-한양대 산학협력단(010-2667-6954)</p>	<p>11</p>	<p>12</p> <p>부산콘서트콰이어 명품합창시리즈 4번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아' 19:30 대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p>	<p>1</p>
<p>17</p> <p>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1:00, 14:00 대 전석 4만원/인터파크 티켓(1544-1555)</p> <p>수어연극 '배비장전' 15:00 소 전석 2만원/극단 에파타(010-7277-7898)</p>	<p>18</p>	<p>19</p> <p>꿈의 오케스트라 '부산' 정기연주회 19:00 대 무료/부산동구문화원(461-0325)</p>	<p>2</p>
<p>24 2023 장민호 전국투어 콘서트 16:00 대 (주)밝은누리(1566-9621)</p> <p>가족뮤지컬 '엄마까투리는 슈퍼맘' 11:00, 14:00, 16:30 소 전석 6만원/(주)더화랑이엔티(1800-6567)</p>	<p>25</p>	<p>26</p> <p>2023 평화통일 콘서트 18:00 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866-6363)</p> <p>안창섭 절대 독주회 '두 젓대 이야기' 19:30 소 안창섭(010-3560-0778)</p>	<p>테레사여자고등학교 제1 대 테레사여자고등학교 (640-1218, 010-5</p>
<p>31 캐리tv 액티비티 뮤지컬 시즌1 '점프점프' 11:00, 14:00 소 전석 5만5천원/(주)드림엔터테인먼트(1600-1787)</p>			

ED	THU	FRI	SAT
		1	2
		2023 부산국악축제 19:00 ☎ (사)한국국악협회(644-5211)	2023 부활 단독콘서트 'Born Again' 17:00 ☎ 12만1천원·11만원·9만9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 2023 부산국악축제 17:00 ☎ (사)한국국악협회(644-5211)
6	7	8	9
'DAY1. MBC 그랜드쇼' (2)	2023 MY MBC 콘서트 'DAY2. 2023 팬텀 콘서트' 19:30 ☎ 부산MBC(760-1122)	뮤지컬 '샤스타 데이지' 19:30 ☎ 영산대·한양대 산학협력단(010-2667-6954)	NEW 뮤지컬 신비아파트 '붉은 눈의 저주' 11:00, 14:00, 16:30 ☎ 전석 6만6천원/인터파크 티켓(1544-1555) 뮤지컬 '샤스타 데이지' 19:00 ☎ 영산대·한양대 산학협력단(010-2667-6954)
3	14	15	16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VI '춤-바라보다' 19:30 ☎ 초대/부산여자대학교(850-3261) 이바디예술단과 함께하는 소리의 향기 二打 19:00 ☎ 이바디예술단(010-2038-6623)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1:00, 14:00 ☎ 전석 4만원/인터파크 티켓(1544-1555) 수어연극 '배비장전' 15:00 ☎ 전석 2만원/극단 에파타(010-7277-7898)
0	21	22	23
	그림읽어주는베토벤 세계명작극장 시리즈 '플란다스의 개' 19:30 ☎ 4만원·3만원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02-766-7623) 청소년 교육 뮤지컬 '중독게임' 19:30 ☎ 뮤&오 라가찌(010-7929-0199)		2023 장민호 전국투어 콘서트 '호시절(好時節): 민호랜드 MIN-HO LAND' 17:00 ☎ 14만3천원·13만2천원·12만1천원 (주)밝은누리(1566-9621) 가족뮤지컬 '엄마까투리는 슈퍼맘' 11:00, 14:00, 16:30 ☎ 전석 6만원/(주)더화랑이엔티 (1800-6567, 010-8495-1215)
7	28	29	30
회 정기연주회 14:30 (016-9587)			하용별 콘서트:보컬전쟁 'The War of Vocalists' 15:00, 19:30 ☎ 13만2천원·12만1천원·11만원·9만9천원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캐리tv 액티비티 뮤지컬 시즌1 '점프점프' 11:00, 14:00, 16:30 ☎ 전석 5만5천원/(주)드림엔터테인먼트(1600-1787)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606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6 Last Works VI
Pärt and Strauss

영웅의 생애

지휘 최수열

파트 / 벤자민 브리튼을 기리는 칸투스
슈트라우스 / 영웅의 생애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문의 051-607-6000(ARS1번)



부산시립교향악단

www.bscc.or.kr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CONTENTS

12

월간문화예술정보지



24



28



34

14 Column

세계유산 가야와 가야금의 긴 여운

16 Cover Story 1

일상에서 누리는 감동과 행복

(재)부산문화회관 2024 상반기 공연프로그램

20 Cover Story 2

2024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4 거꾸로 보는 미술사 ㉓

옛 흔적을 담은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예술

28 세계의 콘서트홀 ㉔

민헨의 콘서트홀 이야기,

가슈타익(Gasteig)을 중심으로

32 서울통신원

연출가 시대의 오페라...

새로움과 억지스러움 사이

34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37 Preview

50 Review

53 Program Guide

68 New Book

69 BSCC News

예술의 초대 December 2023 Vol.384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3년 11월 25일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이기중 홍보팀장 김명숙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정복업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세계유산 가야와 가야금의 긴 여운

박창희 경성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스토리랩 수작 대표



가야가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3년 9월 17일 고대 가야를 대표하는 가야고분군(Gaya Tumuli) 7곳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정식 등재했다. 해당 고분은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경관이 보존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한국은 경주 석굴암·불국사,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서울 종묘 등 모두 16건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가야고분의 세계유산 등재는 한마디로 쾌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삼국시대의 언저리에서, 혹은 삼국의 부수적 존재로 소홀히 다뤄온 그 가야다. 기록이 없어 신비의 제국(諸國), 미스터리 왕국쯤으로 치부됐던 가야는 무덤 속에 500여 년의 찬란한 역사를 증언하는 유물과 유적을 남겨 스스로 당당히 깨어났다. ‘불멸의 가야다.’

‘가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6가야, 연맹, 금관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철의 왕국, 순장, 수로왕, 허왕후, 해상교역 따위가 떠오른다. 또 하나, 가야금(伽倻琴)이 있다. 가야금은 ‘가야의

금’이다. 신라의 금, 백제의 금이 아니다. 삼국의 틈바구니에서 일찍 멸망한 나라의 악기 가야금은, 주지하듯이, 1,500년 이상 한민족 음악을 대변하며 겨레의 심금을 울려왔다. 이제 가야문화가 세계유산이 되었으니 가야금도 응당 세계무대에 서야 한다. 한류의 새로운 길을 열자는 말이다.

악성 우륵과 가야금 12곡

가야금은 경북 고령에 존재했던 대가야의 가실왕이 만들고, 당대의 악성 우륵이 곡조와 선율을 완성했다고 전한다. 우륵의 연주는 신라 진흥왕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우륵은 만년에 충주에 머물면서 제자를 키우고 가야금 곡을 다듬어 가야금을 마침내 신라의 대악(大樂)으로 정착시킨다. 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소리의 세계를 꽃피웠던 우륵, 그의 신라행을 두고 ‘배반자’ ‘투항자’라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조국보다 가야금을 더 사랑한 사내의 마음을 정치적으로만 평가할 일은 아닌 듯하다.

가야금은 지역통합과 개방성, 민족 화합의 메시지를 던진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대가야의 우륵은 가실왕의 명령으로 가야금 12곡을 만들었다. 하가라도(下加羅都), 상가라도(上加羅都), 보기(寶伎), 달이(達已), 사물(思勿), 물혜(勿慧), 상기물(上奇勿), 하기물(下奇勿), 사자기(獅子伎), 거열(居烈), 사팔혜(沙八兮), 이사(爾赦)가 그것이다. 우륵 12곡은 1년 열두 달, 가야금 12줄을 상징하고 곡명은 당시 지명을 나타낸다는 게 학



경주 계림로 30호분에서 출토된 토우장식 장경호 가야금 연주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사진/문화콘텐츠닷컴)

계의 연구다. 후기 가야의 지역음악을 우륵이 가야금곡으로 편곡한 것이다. 사자기와 보기는 중국에서 건너온 가야금곡이다. 사자기는 사자 가면을 쓰고 불교 사원의 장례나 법회 때 추는 춤으로 당시 가야 지역에 불교가 수용됐음을 짐작게 한다. 보기는 금색 공을 가지고 노는 일종의 곡예로, 서역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가야의 개방성과 국제교류 관계를 엿보게 한다.

‘성열현 사람’ 우륵은 가실왕의 부름을 받고 가야금곡 제작에 들어간다. 때는 6세기 백제가 대가야 지역으로 진출하고 신라가 김해 금관가야를 침탈하던 시기다. 대가야는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었으나 속마음은 서로 달랐다. 군대를 늘리고 성을 쌓아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실왕은 우륵에게 가야금곡을 만들도록 했다. <삼국사기> 전언대로 “가야 여러 나라의 방언이 각각 달라 소리음(聲音)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단안이었다. 가야금이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대가야의 화합과 통합의 상징이 되고 있음이다. 고려가 몽골 침략에 대응해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조선 세종이 백성을 어여뻐 여겨 한글을 창제한 문화 유전자가 일찍이 가야에서 싹튼 셈이다.

세계무대에서 새로운 한류 열어가야

천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가야금의 선율은 이땅 곳곳에 남아 있다. 산에도, 들에도, 흐르는 강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곱게 스며든 소리의 여운. 가야금의 청아한 음색은 오동나무와 명

주실에서 영글어 우러 나온다. 산천에서 20년 이상 풍상을 견딘 오동의 나뭇결과 단단함, 질긴 명주실이 ‘가야의 선율’을 창출한 것이다. 인간의 지혜와 자연의 오묘한 순환이 빛은 큰 음악(大樂)이다.

오동잎이 떨어지는 달밤, 바람결에 흐르는 가야금 가락을 들노라면 세상사 근심이 풀어지고 과거로부터 미래 상상력의 힘을 얻게 된다. 단군신화의 천부인(天符印)과 방울, 신라의 만파식적이 그렇듯이, 가야금 소리는 예와 음악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한민족의 음악존중 사상의 발로로 이해된다. 요즘 유행하는 음악과는 차원이 다르다. 가야금의 여러 연주 중에서도 가야금 산조(散調)는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산조는 산보하듯 자유로이 유희하며 만나는 허튼가락이다. 여기에 춤과 시, 노래가 더해지면 한민족의 풍류가 완성된다. 가수 김수철은 여기에 착안해 ‘기타 산조’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바 있다.

가야금도 최근 ‘변주’를 시작했다. 1960년대 초부터 연주 공간의 변화와 새로운 창작음악의 출현은 철가야금과 13현, 15현 가야금을 등장시켰다. 북한은 현재 옥류금이라 불리는 21현 가야금을 만들어 쓰고 있다. 형태와 소리는 달라지고 있지만, 가야의 음악정신은 살아 숨쉬고 있다. 가야고분의 세계유산 등재는 가야금이 새롭게 가야 할 길을 묻는다. 가야금이 가야의 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류의 새로운 경지를 여는 한국의 금, 세계의 금이 되길 기대해본다.

일상에서 누리는 감동과 행복

(재)부산문화회관
2024 상반기 공연프로그램

2023년 올 한해 공연예술의 생생한 감동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재)부산문화회관이 2024년을 한 달 앞두고 내년 상반기 공연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과 계획적인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즌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재)부산문화회관은 2024년에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갑진년 새해의 시작을 열다

매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1월 5일부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하고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지난 2017년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을 기념하여 시작된 행사로, 매년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부산 클래식 공연의 위상을 높여오고 있다. 2024년에는 1월 5일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채키브의 개막연주회를 시작으로 월드클래스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실내악 무대에서부터 부산의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부산지역 5개 대학이 참가하는 대학 실내악축제, 그리고 첼로와 발레, 탱고와 실내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까지 총 7차례 실내악의 성찬이 차려진다.

(재)부산문화회관이 매년 마련하는 신년음악회도 빠질 수 없는 터, 2024년에는 1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갑진년 새해를 활짝 열 이번 ‘2024 신년음악회’는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새로운 시작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힘차고 희망적인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재일교포 3세 출신으로, 일본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지휘자 세이코 김(Seikyo Kim, 한국명 김성향)이 부산을 찾는다. ‘일본 클래식계의 프린스로 불리는 세이코 김은 1998년 니콜라이 말코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무대에 데뷔한 후 가나자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가나자와 오케스트라 앙상블의 ‘예술적 동반자(Artistic Partner)’를 역임했고, 벨기에 브뤼헤 플랑드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로 활동했다. 세이코 김은 2008년 교향악축제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한 이래 부산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등을 지휘하며 세밀한 지시와 풍부한 감정, 강렬한 에너지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세이코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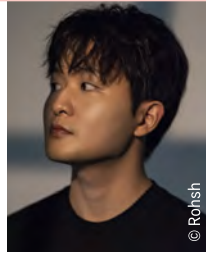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



임동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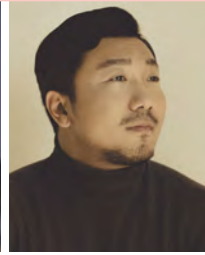
연광철



선우예권



황수미



안종도



김유빈

월드 콩쿠르 우승자에서부터 다시 돌아온 마티네 콘서트까지

월드 콩쿠르를 석권한 국내외 아티스트들을 초청, 그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된다. 2024년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는 2001년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1위 입상과 더불어 5개 상을 휩쓸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우뚝 선, 1세대 아이돌 피아니스트 임동혁(3월 13일)을 시작으로 1993년 프랑스 플라시도 도밍고 콩쿠르 우승자인 베이스 연광철과 2017년 한국인 최초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3월 13일), 2014년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황수미와 2012년 프랑스 롱-티보 크레스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없는 2위의 피아니스트 안종도(6월 19일)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지며, 2022년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플루트 부문 한국인 최초 우승자 플루티스트 김유빈(8월 28일)이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내년에는 팬데믹 여파로 중단됐던 마티네 콘서트가 4년만에 다시 돌아온다. 브런치 콘서트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한 낮의 공연으로 호평받았던 마티네 콘서트는 내년 3월 15일과 6월 28일 두차례, 차세대 지휘자 차웅과 원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주영이 부산시립교향악단, KNN방송교향악단과 함께 2024년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푸치니의 4대 걸작 오페라의 주옥같은 아리아로 오전 11시의 행복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아름다운 영상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는 6월 15일 부산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 프로젝트 연주그룹 어쿠스틱 카페는 일본을 대표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츠루 노리히로를 중심으로 구성된 앙상블로, 이름 그대로 어쿠스틱 악기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연주로 관객들을 매료시켜 왔다. 특히 어쿠스틱 카페는 츠루 노리히로가 작곡한 '라스트 카니발(Last Carnival)'로 국내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첫 내한공연 이후 수차례 한국을 찾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쿠스틱 카페의 대표곡을 비롯해 '천공의 성 라퓨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OST, 그리고 츠루 노리히로가 음악감독을 맡은 애니메이션 '별을 산 날'의 원작삽화와 OST를 만날 수 있다.



어쿠스틱 카페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세 편의 연극이 부산을 찾는다. 3월 1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2015년 제36회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 연출상을 수상한 연극 '돌아온다'가 관객과 만난다. 허름한 식당을 무대로, 한 잔의 막걸리에 절절한 삶의 애환을 위안 삼는 연극 '돌아온다'는 무대와 방송을 넘나들며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배우 김수로, 강성진 등의 앙상블이 빛나는 작품으로, 특히 2017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제41회 몬트리올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갈림길에 선 여자



야구왕, 마린스!

4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위태로운 중년들이 풀어 내는 삶의 애환을 그린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가 선보인다. 은퇴 후 집에서 홀로 강아지를 돌보는 60대 가장 영호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40대 샐러리맨 종수, 자식농사 잘 짓고 노후 걱정 없이 사는 말복, 늦은 나이에 손자를 봐야 하는 갱년기 여성 영자, 세월이 가도 사랑받고 사는 예쁜 은정, 사춘기 자녀와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미경이 찜질방에 모여 삶의 애환과 고민을 털어놓는 드라마 형식의 유쾌한 극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개그맨 이홍렬이 주인공으로 열연을 펼친다

6월 22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는 2022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글로벌 아티스트 쇼케이스 선정작이자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선정작인 ‘갈림길에 선 여자’가 무대에 오른다. 부산의 청년극단 옆집우주가 선보이는 ‘갈림길에 선 여자’는 서울로 떠날까 부산에 머물까 혼란스러운 갈림길에 서 있는 한 극단을 배경으로,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선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최초로 선보여 호평받았던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는 내년 5월,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난다. 매



잠자는 숲속의 미녀

년 ‘메이드 인 부산’ 공연을 제작했으며 제작극장으로서 자리매김한 (재)부산문화회관이 처음 제작한 창작뮤지컬로, 부산의 문화 아이콘이자 국내 1위 인기 스포츠 ‘야구’와 세계가 주목하는 K-뮤지컬의 만남으로 제작에서부터 화제가 된 작품이다. 가상의 부산 유소년 야구단 ‘마린스 리틀 야구단’을 배경으로, 전국 최강을 꿈꾸는 ‘마린스 리틀 야구단’의 꿈과 열정, 갈등과 화해, 성장과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차이콥스키의 명작 발레를 만나다

부산시민회관에서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과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로 손꼽히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7월 12일과 13일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클래식 발레의 교과서와도 같은 작품으로 사랑받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대표적인 고전 발레로, 명작동화의 감성에 더해진 화려한 몸짓과 기교를 넘는 고전 발레 본연의 우아함으로 초연 후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무대에 꾸준히 공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1994년 창단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최초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초연했던 유니버설 발레단이 19세기 황실발레의 황금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화려하고 정교한 무대로 부산 관객과 만난다.

우리 아이를 위한 첫 클래식 공연

내년에는 어린이들이 클래식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우선 어린이들과 클래식의 간격을 좁혀 줄 새로운 클래식 공연 시리즈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가 첫 선을 보인다. 1월 27일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공룡이 살아있다

받는 애니메이션 OST를 들려주며, 3월 23일과 5월 18일에는 각각 '오즈의 마법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주제로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특히 연주자뿐 아니라 배우, 성악가, 발레리나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꼬마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아이 첫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는 2월 24일과 4월 20일 두차례 열린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는 EBS 프로그램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의 인기 캐릭터와 재미있는 스토리를 활용한 다양한 교구 놀이를 통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레미 탐험대장의 재미있는 해설과 현악 4중주단 도레미 앙상블의 연주로 엘가 '사랑의 인사', 비발디 '사계' 중 '봄', 파헬렐 '캐논', 드보르 작 '신세계로부터' 등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만날 수 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역사와 함께하는 뮤지엄 판타지 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가 5월 11일과 12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공룡이 살아있다'는 국내 창작 가족뮤지컬 역사상 첫 해외 진출에 성공한 작품으로, 2016년 한국 초연 이후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 해외 투어 일정을 마치고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국내 무대에 오른다. 사라진 아기 티라노 화석 '타루'를 찾기 위한 모험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이번 작품은 뮤지컬 전문 배우를 비롯한 마살아츠 전문 배우들의 노련한 연기와 오브제의 정교한 움직임을 통해 공룡과 함께하는 환상적인 판타지를 선사한다.

게임음악 OST에서 렉처 콘서트까지

이밖에 최근 들어 또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잡기 시작한 게임음악 OST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3월 9일 부산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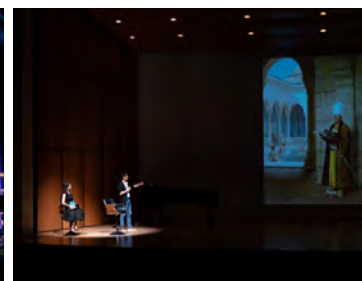
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게임음악 전문 콘텐츠 플랫폼인 플래직(FLASIC)과 (재)부산문화회관이 기획한 무대로, 게임 음악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도하는 지휘자 진술의 지휘로 음악과 영상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마치 게임 속에 들어가 직접 모험을 떠나는 듯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또, 올해 오페라와 그림, 공연이 어우러지는 렉처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은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가 내년에는 '미술관 옆 콘서트홀'로 돌아온다. '미술관 옆 콘서트홀'은 싱그러운 녹음이 돌아나는 5월에는 '숲의 정령'(5월 10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에는 '젊음과 바다'(7월 19일),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에는 '헤어짐과 그리움'(9월 6일)이라는 키워드로 그에 걸맞은 음악과 미술작품을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올해 시즌에서도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던 아트 스토리텔러 이주현과 클래식 전문 아나운서 손지현이 장르를 가리지 않는 문화예술 '짚팬'들과 함께 한다.

2024년 상반기 시즌 프로그램 티켓은 12월 6일 오후 2시(정기회원 선예매는 5일)부터 예매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051-607-6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게임음악 콘서트



미술관 옆 콘서트홀

2 0 2 4 B U S A N C H A M B E R F E S T I V A L

2024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4년 1월 5일(금)~20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별이 빛나는 부산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이 1월 5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지난 2017년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을 기념하여 시작된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매년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정통 실내악의 감동을 선사하며 부산 클래식 공연의 위상을 높여왔다. 2019년부터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리더로 활동하는 김동욱이 예술감독을 맡아 보다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월드클래스 아티스트들이 펼



치는 다채로운 실내악 무대에서부터 부산의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부산지역 5개 대학 전공자들의 대학 실내악축제, 그리고 첼로와 발레, 탱고와 실내악이 어우러지는 이색무대까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다.

2024년 새해를 빛낼 줄 이번 챔버페스티벌에는 그동안 부산에서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선다. 개막무대를 빛낼 줄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를 비롯해 지난해 챔버페스티벌 최고의 스타였던 첼리스트 요나 김과 K-클래식의 아이돌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그리고 홍콩필하모닉 비올라 수석 앤드류 링, 길드 국제콩쿠르에 우승한 줄리어드 음대 출신의 클라리네티스트 김윤아가 부산을 찾으며,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뛰어난 연주실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있는 앙상블 오푸스가 폐막무대를 통해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 [개막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의 Mozart & Mendelssohn

1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 입장료: R석 4만원, S석 2만원



“흔치 않은 음악적 자질이 있으며,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세심하게 연주한다”

-보스턴 글로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의 화려한 막을 여는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는 현재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이다. 하버드 출신의 훈남 바이올리니스트로, 특히 우리에게 수필가 고 피천득 선생의 외손자로 친숙하다. 스테판 피 재키브는 2002년, 17세의 나이에 유망한 신예 연주자에게 주는 미국 최고 권위의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 리처드 용재 오닐이 이끄는 앙상블 디토의 일원으로 합류하면서 국내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는 뉴욕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클리브랜드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로테르담 필하모닉 등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며 숨가쁘게 전 세계 주요 클래식 무대를 누비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스테판 피 재키브가 부산에서 갖는 첫 단독무대로, 우아함과 활기가 유쾌하게 어우러진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과 아름다운 멜로디와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진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두 곡을 들려준다.

• 연주/부산체임버페스티벌오케스트라

✓ 첼리스트 요나 김 & 발레리나 줄리아 로의 <Songs That Make US Dance>

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 입장료: R석 4만원, S석 2만원



첼리스트 요나 김은 지난해 연주자로 한국에서의 첫 무대였던 ‘2023 챔버페스티벌’에서 그만의 뛰어난 연주실력과 유쾌함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당시 최고의 스타로 주목받았다. 아직까지는 국내 클래식 음악팬들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요나 김은 그의 스승이자 첼로계의 거장 야노스 슈타커로부터 ‘그 세대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그를 ‘차세대 요요마’라며 극찬을 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첼로 선율과 발레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로, 요나 김이 연주하는 사이프리트 ‘폭풍속으로의 댄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선율에 맞춰 미국 샌프란시스코 발레단 수석무용수로 있는 줄리아 로의 발레 무대가 펼쳐진다. 또,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윤수와는 라흐마니노프와 쇼팽의 첼로 소나타를 들려주며, 요나 김이 직접 작곡한 ‘십계’ 중 ‘내 삶의 노래’도 감상할 수 있다.

• 첼로/요나 김 • 발레/줄리아 로 • 피아노/이윤수

World Stars in 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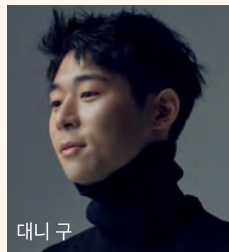
1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 입장료: R석 4만원, S석 2만원

월드클래스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실내악의 향연. 개막무대의 주인공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를 비롯해 열정적인 음악가이자 많은 팬덤을 확보한 스타 아티스트 대니 구, 홍콩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홍콩, 남미, 유럽 등지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홍콩 출신의 비올리스트 앤드류 링, 넘치는 에너지로 '다음 세대의 요요마'라고 극찬받는 요나 김, 2016년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국제콩쿠르' 30년 역사상 클라리넷으로 최초 우승하며 뉴욕타임스로부터 '거침없는 기교, 대단한 재능'이라는 호평을 받은 클라리네티스트 김윤아가 모차르트, 드보르작, 브람스의 실내악곡으로 실내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 바이올린/스테판 피 재키브, 대니 구 • 비올라/앤드류 링 • 첼로/요나 김 • 클라리넷/김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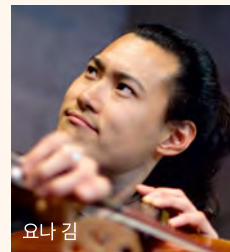
스테판 피 재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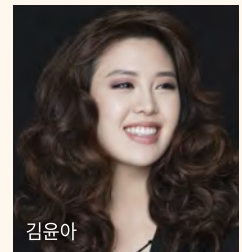
대니 구



앤드류 링



요나 김



김윤아

학교 실내악축제

1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 입장료: 전석 1만원

부산의 문화와 미래인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의 실내악 팀의 '학교 실내악축제'가 부산 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각 학교에서 선발된 우수한 대학생들의 활기차고 열정적인 연주를 선사한다. 올해는 특별히 부산시 산하의 예술영재교육원인 부산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술영재교육원의 영재학생들의 무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의 토크콘서트 <별이 빛나는 부산>

1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 입장료: R석 4만원, S석 2만원



천재적인 음악성과 모험적인 프로젝트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진행하는 무대로, 현재 MBC TV예술무대 진행자로도 활약하고 있는 대니 구의 재치있는 입담과 연주로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대니 구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국악, 재즈, 가요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협연하며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왔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중과 클래식 음악 사이의 거리를 좁혀오고 있다. 특히 토크콘서트로 진행될 이번 무대는 대니 구의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의 음악팬들에게 새해 선물와도 같은 소중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 피아노/문재원

✓ Perfect Tango: 친친탱고×콰르텟 BCMS×이승민

1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 입장료: 전석 2만원



친친탱고



이승민

반도네온 콰르텟 앙상블 친친탱고와 부산의 실내악문화를 주도해온 콰르텟 BCMS, 그리고 팬텀싱어 출신의 바리톤 이승민이 함께하는 색다른 탱고무대로, 친친탱고의 자작곡들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친친탱고와 콰르텟 BCMS가 '탱고의 제왕' 피아졸라의 열정적인 음악을 새로운 편곡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작곡가이자 반도네오니스트 김종완을 주축으로 지난 2020년 창단된 친친탱고는 '누에보 탱고'를 창시한 피아졸라의 수많은 명곡과 그들만의 자작곡을 통해 탱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의 리더와 수석들로 구성된 콰르텟 BCMS은 2020년 창단된 후 국내 최고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 TV 예능프로그램 '팬텀싱어 시즌4'에서 3위 입상한 바리톤 이승민은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소화제 바리톤'이라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폐막연주회] 앙상블 오푸스 초청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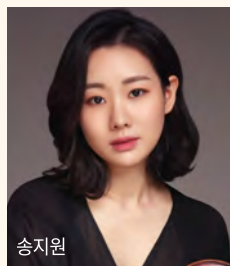
1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 입장료: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4년 무대를 마무리하는 폐막무대로,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조합으로 주목받아온 앙상블 오푸스가 관객과 만난다. 작곡가 류재준을 예술감독으로 백주영과 김상진, 김민지, 송지원, 심준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김규연, 김홍박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앙상블 오푸스는 앙상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으로 고전을 비롯하여 바로크, 근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연주투어를 통하여 레퍼토리와 연주력으로 집중적인 조명과 관심을 받고 있는 앙상블 오푸스는 이번 무대에서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서울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화여대 교수), 비올리니스트 김상진(연세대 교수), 첼리스트 김민지(서울대 교수),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성신여대 교수)가 쇼스타코비치와 드보르작의 피아노 오중주로 최고의 하모니로 선사한다.

- 바이올린/백주영, 송지원
- 비올라/김상진
- 첼로/김민지
- 피아노/일리아 라쉬코프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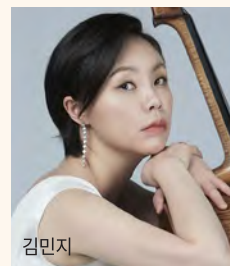
백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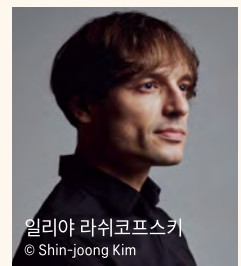
송지원



김상진



김민지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 Shin-joong Kim

옛 흔적을 담은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예술

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높고 화창한 하늘의 가을, 부산 수영구의 F1963에서 매주 미술사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가을 아침의 맑고 알싸한 공기를 폐에 가득 담고 눈을 반짝이는 분들과 미술사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다.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분들을 만나는 것 역시 설레는 시간일지언데, F1963이라는 다소 생경한 이름을 가진 그 장소 역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곳은 고려제강의 옛 수영공장이었던 곳으로, 부산비엔날레의 전시장으로 쓰였고 지금은 미술문화를 가득 담고 있는 장소로 탈바꿈했다. 이렇듯 과거의 흔적을 가진 채 예술로 새롭게 재탄생한 공간이 적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다.



1, 2 오르세 미술관 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파리 중심의 기차역이었던 오르세 미술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폐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파리 센강가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이 있다. 본래 이곳은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에 맞춰 개관한 오르세 역으로, 파리 시내로 들어오는 철도가 지나가던 장소였다. 하지만 1939년에 철도역 영업이 중단되면서, 오랫동안 파리의 고민거리였다. 그러다 1986년 프랑스의 근대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오르세 미술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곳은 모네와 마네 등 인상주의의 작품이 대거 소장되고 전시된 곳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박물관의 천국 파리에 가면, 루브르 미술관(Musée du Louvre)에서 고대와 중세의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강 건너 오르세 미술관에서 근대미술작품을 보면 미술의 역사가 연결된다. 그리고 현대미술은 몽피두 센터(Centre Pompidou) 내 프랑



스 국립현대미술관(Musée National d'Art Noderne)에서 볼 수 있다.

루브르 미술관 역시 옛 궁전을 미술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전시와 관람객의 방문이 용이하게 내부만을 변경하였다. 오르세 미술관 역시 철도역 특유의 높은 층고의 아치와 유리 와 철근으로 된 천장, 그리고 멋진 대리석으로 장식된 외양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을 변경하여 멋진 전시장이 되었다.^[도판 1, 2] 그래서 특히 철도역의 상징이기도 했던 커다란 시계는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포토존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과거 철도역이었던 유물이기도 한 건물 안에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예술작품을 전시하면서, 오르세 미술관은 그 자체로 파리의 중요한 보물이 되었다.

국군기무사 사령부였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파리에 오르세 미술관이 있다면, 런던에는 발전소를 리모델링한 ‘테이트 모던(Tate Modern Museum)’이 있다.



4 수영공장 옛 모습 5 F1963 6,7 F1963 도서관과 스퀘어

그리고 서울에는 옛 국군기무사사령부 터에 자리잡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하, 국현 서울관)’이 있다. [도판 3]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기도 하는 국현 서울관은 옛 건물을 리모델링한 본관과 신축한 신관, 그리고 조선의 종친부 건물이었던 ‘경근당’을 이전하여 조성되었다. 왕실의 대소사를 논하던 관청인 종친부가 있던 자리였으나, 기능과 건물이 이전했었다. 하지만 국현 서울관을 조성하면서, 옛 자리에 있던 건물 중 한 채인 경근당이 자리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현 서울관은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장이 되었다. 또한 서울관은 1986년 개관하였던 국현 과천관이 접근성이 낮았던 점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면서 덕수궁미술관은 근대기의 작품이 주로 전시가 되고, 서울관에서는 현대미술과 함께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 청주의 옛 연초제조창 건물을 개조하여, 국현의 소장품을 보관하며 전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현 청주관도 2018년 개관하였다. 국현 청주관은 연초제조창의 일부를 유지하면서도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설치하였다. 또한 ‘보이는 수장고’를 운영해서 미술애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옛 충남도청사를 개조한 대전관도 진행 중이며 몇 년 후에 문을 열 것이다.

대한제국의 근대식 석조전이었던 덕수궁미술관, 옛 연초장이었던 청주관, 옛 충남도청이었던 대전관 그리고 국군기무사 사령부였던 서울관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은 옛 역사의 흔적 속에 현대의 새로운 예술과 문화를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공존은 예술을 통해 더할나위없이 아름답고 가치있게 피어나는 듯하다.

그리고 부산의 문화공간, F1963

부산에도 역사적인 장소가 적지 않다. 부산의 근현대역사관은 일제강점기에 동양척식주식회사였고 미국문화원으로 쓰이던 건물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려제강에

서 그 모태가 되었던 와이어 생산을 했던 수영공장이 ‘F1963’이라는 문화적 공간으로 탄생했다. 와이어 생산라인과 물류를 보관하고 운반하던 곳은 새롭게 재단장을 해서, 미술과 음악 그리고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다. [도판 4, 5, 6, 7]

1963년 개관하여 2008년까지 45년동안 와이어를 생산했던 수영공장이었지만, 이후 2016년 부산비엔날레에서 전시관이 된 것을 계기로 문화공간이 되었다. 이곳 역시 옛 공장의 뼈대와 구조를 유지한 채, 일부 외관과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석천홀, 도서관, 음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스캐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공장(Factory)을 뜻하는 ‘F’와 수영공장이 처음 탄생한 연도인 ‘1963’을 결합하여, F1963이라는 색다른 이름으로 부산의 문화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고도 아름답게 꾸며진 연못과 아기자기한 정원, 산책하기 좋은 대나무 숲은 도심 속의 휴식처가 되기에 충분하다.

예술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가꾸는 장소들

시대를 앞서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는 아방가르드 정신은 20세기 이후 계속된 현대미술의 중요한 정신이다. 하지만 이렇게 앞서 나가며 그저 과거를 터부시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제시하는 것 역시 시대를 앞선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철도역, 공장, 관청 등, 지금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역사적 기억과 흔적이 남아있는 건물들은 예술을 통해서 또 다른 현재를 가꾸고 미래를 바라보는 장이 될 수 있다. 건물에 담긴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남겨두면서도 지금의 우리와 의미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가교를 예술로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미술과 문화로 가꾸어진 장소에서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에 잠깐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옛 건물들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뮌헨의 콘서트홀 이야기, 가슈타익(Gasteig)을 중심으로

글, 사진_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1 가슈타익



우리에게 뮌헨하면 자동차 회사 BMW와 맥주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FC 바이에른에서 활약 중인 김민재 선수 정도를 떠올리겠지만, 뮌헨은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중 한 곳이다. 미술의 영역에서도 알테와 노이에 피나코텍과 모던, 청기사과의 명작들을 보유한 렌바흐 미술관 등 유럽 어느 도시에도 손색없는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연의 영역에서는 어떠한지 이야기 해 보자.

먼저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극장은 유럽 최고 중 하나인 빈 국립 오페라 극장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프로덕션을 가지고 매년 양질의 오페라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현 베를린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인 키릴 페트렌코가 전임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BRSO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독일 최고 교향악단 중 하나이며, 유럽 아니면 세계를 통틀어서도 TOP 5 안에 들어가는 명문 교향악단이다. 이번 시즌부터 사이몬 래틀 경이 음악감독이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기에 500년 역사를 지닌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와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까지, 이 모두를 한 도시가 보유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면면들이 화려하다. 그렇다면 복수의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보유한 뮌헨의 콘서트홀은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하자.

BRSO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뮌헨 도심 내 궁정인 레지덴츠에 위치한 헤라쿨레스 홀에서 공연을 한다. 다소 규모가 작은 공연장이기에 가슈타익(Gasteig)에서 번갈아 정기 연주회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연주를 하며, 뮌헨 필하모닉과 기타 초청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가슈타익에서 이루어진다.



2 가슈타익 필하모니아

가슈타익(Gasteig)

뮌헨 시내 이자르 강의 동쪽 고지대에 위치한 가슈타익은 유럽에서 가장 큰 문화센터 중 하나이다. 2만 3천 평방제곱미터에 이르는 단지 내에 2,572석의 대형 콘서트홀과 중극장, 소극장 외 기타 이벤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75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여기에 뮌헨 필하모닉의 본부와 뮌헨 시립도서관 및 뮌헨 음악 및 연극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가슈타익이라는 이름은 ‘Gach-Steig=가파른 길’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곳은 루드빅스브뤼케(Ludwigsbrücke)에서 이자르강의 높은 강둑 위에 있는 성 니콜라이(St. Nikolai) 교회까지 이어지던 길이다. 오랫동안 이 지역을 부르는 이름에서 문화센터 가슈타익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건축가 롤렌 하겐, 린더만 등의 계획에 따라 1978년에 시작되어 1984/85 시즌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건물과 음향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으로 인해 뮌헨 시의회는 2017년 4월에 전면 개조 공사에 동의했다. 그리고 새로운 가슈타익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아자르 필하모니(Isarphilharmonie)가 있는 가슈타익 HP8이 대체 공연장으로 쓰이게 되며 2021년 10월 개관했다.

가슈타익 HP8

가슈타익 HP8은 뮌헨 젠들링 지역의 문화 센터이다. 목표 완공기간인 2027년까지 가슈타익의 개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BRSO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대체 공연장 역할을 한다. 가슈타익에서 행해지는 공연 외에도 개방형 도서관인 뮌헨 시립 도서관, 뮌헨 필하모닉 본부, 뮌헨 음악 및 연극 대학교(HMTM)까지 다함께 이전했다. HP8이라는 작명은 공모를 통해 소재지인 뮌헨 젠들링의 한스 프라이싱어 스트라세(Hans-Preißinger-Straße 8) 주소명의 약자를 따서 명명되었다.

지난 11월 15일, 16일 양일간 가슈타익 HP8에서는 정명훈이 지휘하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협연을 했으며, 17일은 독일계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의 연주가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1일, 22일은 최근 여성 지휘자로 활약 중인 성시연이 BRSO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을 지휘한다. 그야말로 K 클래식 향연이 뮌헨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운 좋게 임윤찬 협연 공연을 현지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 공연은 일치감치 매진되어 현지 뮌헨 시민들의 높음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3, 4 정명훈이 지휘하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자 임윤찬

새로운 가슈타익(Der Neue Gaste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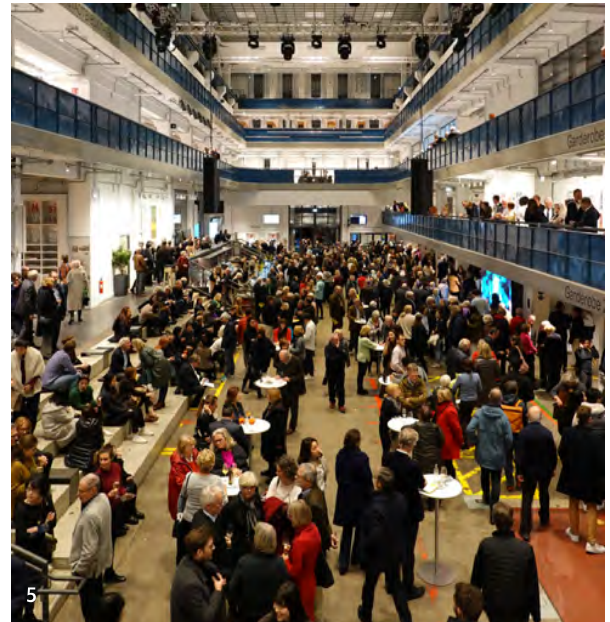
계속해서 매력적이고 활기차며 포용적인 예술, 문화 및 교육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목표하에 시작된 건물 재개발은 가슈타익의 미래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개발하려는 초기 결정은 기술적 필요성에서 탄생했다. 35년 이상의 운영 끝에 콘서트홀 내부에 있는 200개 이상의 기술 설비 대부분은 평균 수명에 도달하거나 초과했다. 이로 인해 필수 기술 시스템이 고장날 위험이 높아지고, 이러한 고장이 발생하면 건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폐쇄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양한 개발 옵션을 조사한 결과, 내린 결론은 건물 자체를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모든 건물 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무엇보다도 고질적인 음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했다.

2017년 4월, 뮌헨 시의회는 전반적인 개조 공사에 대한 승인을 내렸고, 2019년 6월 시의회 결의안에 따라 뮌헨 건축회사인 헨(Henn)이 개조 공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가슈타익은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위해 폐쇄되었는데, 공사기간 4년, 약 4억 5천만 유로(한화 6천 5백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가슈타익 HP8이 젠들링에 건설되었고, 2021년 10월 운영을 시작했다. 임시 공연장이라고 하지만, 세계적인 일본인 음향 엔

지니어 토요타 야스히사가 투입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미 복수의 콘서트홀이 있음에도 더 향상된 시설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하는 가슈타익, 그리고 불과 4년이라는 공사 기간 동안 임시방편으로 쓰이는 공연장임에도 최고 수준의 음향과 콘서트홀로서 전문적인 역할에 손색 없는 HP8을 준비시키는 등 인구 백만이 조금 넘는 도시 뮌헨이 가진 문화적인 자긍심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 못지 않은 최고의 문화적 콘텐츠를 가진 역사가 있음이 부러운 대목이다.

이제 곧 부산은 처음으로 콘서트홀을 가지게 된다. 서울, 성남, 고양, 대구, 통영, 인천, 부천에 이어 8번째로 다목적 공연장이 아닌 오케스트라 전용 홀에서 연주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허울뿐, 상주 오케스트라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없이 단지 콘서트홀만 덩그러니 존재하게 된다고 들었다. 새 공연장에 대한 기대만큼 안타까운 대목이다. 아직 개관이 남아 있는 동안 보완할 점은 없는지 되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



5 가슈타익 HP8 로비

연출가 시대의 오페라… 새로움과 억지스러움 사이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지난 10월 전국에서 오페라 공연이 봇물을 이뤘다. 이 가운데 오페라 팬들의 관심이 몰린 것은 성남아트센터의 <나비부인>(12일~15일)과 예술의전당의 <노르마>, 세종문화회관의 <투란도트>(이상 26일~29일)였다. 최근 국내 여느 오페라 프로덕션과 비교해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소프라노 임세경, 여지원과 테너 이용훈이 출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패션 디자이너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구호,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 손진책, 스페인의 저명한 연출가 그룹 '라 푸라 델 바우스' 멤버인 알렉스 오예가 각각 연출을 맡은 것도 세 작품을 놓칠 수 없는 이유였다.

세 작품의 공통점을 꼽자면 원작의 시·공간을 충실히 재현한 전통적인 무대 대신 연출가의 해석에 따라 시대 배경이나 결말 등을 바꾼 레지테아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1930년대 독일에서 등장한 '레지테아터'(Regietheater)는 1970년대 오페라계에서 받아들여졌는데, 프로덕션의 중심이 지휘자나 성악가에서 연출가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특히 유럽 연출가들은 오페라를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에로티시즘과 폭력성이 증가했는데, 작품의 의도를 극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즉각적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레지테아터의 유행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오페라가 현대 관객에게 지루하지 않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레지테아터 오페라에 대한 불만이나 비난도 적지 않다. 특히 설정 자체가 억지스러운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원작의 주제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전통적인 팬들은 질색한다. 한국의 경우 오페라 장르 자체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레지테아터 연출이 매우 적은 데다 유럽에서처럼 파격적이지도 않았다. 이번에 서울과 성남에서 공연된 <나비부인>, <노르마>

<투란도트>는 국내에서 레지테아터 오페라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나비부인>은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대표작 중 하나다. 19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어린 게이샤 초초와 미군 장교 핑커톤의 비극적인 관계를 담았다. 핑커톤이 초초를 현지처로 여기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초초는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며 핑커톤을 기다린다. 그러나 수년 뒤 아내와 함께 일본에 온 핑커톤을 보고 초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다.

정구호는 <나비부인>의 배경을 서기 2576년 우주로 설정한 뒤 옴포리오 행성의 사령관 핑커톤이 평화 협상을 위해 파필리오 행성으로 갔다가 초초 공주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로 바꿨다. 현대 관객에게 불편한 원작의 제국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을 배제하기 위해 전통적인 일본 배경 대신 미래의 우주로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구호의 시도는 공감을 얻지 못했다. 관객 대부분이 이탈리아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무대에서 성악가가 부르는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가사를 자신의 콘셉트에 맞춰 자막을 달았는데, 당연히 편의주의적 연출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게다가 새로운 설정의 설득력이 떨어져서 일각에선 '이야기가 우주로 날아가버렸다'는 냉소까지 나왔다. 정구호 특유의 아름다운 미장센도 이야기와 융합되지 못했다.

예술의전당이 전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벨리니 <노르마>는 2016년 영국 로열오페라극장 프로덕션을 가져온 것이다. <노르마>는 고대 갈리아 지방의 드루이드교 대사제 노르마가 자신들의 정복자인 로마 총독 폴리오네와 내연 관계인 데서 시작된다. 제사장 오로베소의 딸인 노르마는 순결 의무를 어기고 폴리오네와의 사이에서 몰래 두 아이를 낳은 사이. 하지만 폴리오네의 마음이 어린 여사제 아달지사에게 옮겨간 것을 안 노르마는 괴로움을 겪다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한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노르마는 두 아이를 아버지에게 부탁한 뒤 불 속에 뛰어 들고, 예전의 사랑이 되살아난 폴리오네 역시 노르마를 뒤따른다.



<나비부인> © 성남아트센터



<노르마> © 예술의전당



<투란도트> © 세종문화회관

오에는 <노르마>를 현대에도 존재하는 극단적 기독교 공동체와 그 속에서 억압당하는 개인의 이야기로 바꿨다. 이를 위해 십자가와 면류관 등의 상징들을 활용했다. 하지만 원작에서 중요한 점령군과 피지배 집단의 대결 구도가 희미해지다 보니 폴리오네라는 캐릭터가 이상해졌다. 게다가 맨 마지막에 오로베소가 노르마에게 총을 쏘는 장면은 딸의 고통을 줄이고 싶은 아버지의 애정을 나타내는 연출이지만, 노르마의 희생이나 카리스마를 약화시켰다.

끝으로 서울시오페라단이 선보인 푸치니 <투란도트>는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선조인 로링 공주가 침략자에게 유린당한 탓에 남자를 혐오하며 결혼을 거부하는 투란도트 공주의 이야기다. 투란도트가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구혼자들이 참수당하는 가운데 칼라프 왕자가 마침내 수수께끼를 풀어낸다. 그리고 칼라프는 자신을 사랑하는 시녀 류의 희생으로 투란도트의 사랑을 쟁취하게 된다.

그런데, 푸치니가 류의 죽음 장면까지만 작곡한 뒤 타계하는 바람에 지금의 <투란도트>는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감독 아래 작곡가 프랑코 알파노가 미완 부분을 마무리한 것이다. 다만 동화 원작이라도 투란도트가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결말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초연부터 나왔다. 상식적으로 칼라프의 강제 키스는 투란도트의 트라우마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칼라프가 자신을 위해 자결한 류를 보고도 투란도트에게 구매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권력욕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레지테아터의 등장과 함께 <투란도트>의 새로운 결말이 잇따라 시도됐다. 중국풍 해피엔딩 사랑 이야기에서 벗어나 전체주의적 질서에 대한 비판과 함께 투란도트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투란도트가 칼라프의 구애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하는 결말이 많이 등장했다.

손진책은 이번에 <투란도트>의 배경을 전체주의 디스토피아 국가로 바꿨다. 류의 죽음까지는 기존 버전과 유사하지만 피날레에서 투란도트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뒤 류와 함께 영혼으로 등장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어두웠던 무대가 하얗게 바뀌고 흰 옷을 입은 군중이 칼라프와 함께 노래하며 끝난다. 류에 이어 투란도트의 죽음으로 국가를 구원한다는 결말이다. 손진책의 연출은 아직도 한국에서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관점을 보여준다. 모권제 사회를 상징하는 투란도트가 죽어야만 칼라프가 상징하는 율법과 질서의 사회가 나온다는 손진책의 해석은 현대 관객의 눈높이나 세계적인 흐름과는 차이가 크다.

시민의 힘으로 기록하고
공유할 특별한 공간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

박나무 자유기고가

우리 땅이지만 우리 땅이 아니었던 곳. 일제강점기에는 식민 수탈의 첨병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이었고, 해방후에는 미국문화원 혹은 아메리칸센터로 불리우던 곳. 한때는 그 미국문화원을 경찰관들이 지키며 시민들이 건물의 기반으로 올라서는 것도 막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불을 놓아 세상이 발각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후로 땅과 건물을 돌려달라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20세기의 막바지인 1999년에야 한국의 소유로 돌아와 부산근현대역사관이 되었다. 일본과 미국은 한국근대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중요한 나라들인데, 그들이 머물던 곳이 역사관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1929년생, 곧 100살이 될 건물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궁금하다.

20년간 부산근대역사관이었던 곳은 이제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이 되었다. 근대가 근대와 현대로 확장되었고 본관이 별관으로 바뀐 것이다. 바로 옆 건물 옛 한국은행이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으로 문을 열기 위해 한창 공사 중이고, 12월에는 문을 연다. 보통의 순서라면 본관이 문을 열고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사정에 의해 별관을 만들 텐데, 부산근현대역사관처럼 본관이 별관되고, 후에 지어진 건물이 본관 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부산의 근대와 현대사를 다 담아낼 크기로는 옛 한국은행이 적당했고, 옛 미국문화원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좁아서 도서관과 기록관, 그리고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는 인문학 복합문화공





간으로 자리를 잡기로 한 것 형이 믿음직한 동생에게 종가를 넘겨주고 자유롭게 세상을 유영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곧 부산근현대역사관의 본관과 별관이 문을 활짝 열고 시민들을 맞을 텐데, 파란만장한 부산의 근현대사가 어떤 그릇에 담겨 선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그렇게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은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권력자나 역사학자에 의해 기록되는 역사보다 시민들의 눈과 입과 손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부산의 근현대를 오롯이 겪어낸 세대들이 그나마 생존했을 때 지체없이 서둘러야 할 일이기도 하다. <도시를 기록하는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가, 사진가, 기록전문가 등을 초빙해 4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강연과 워크숍으로 여름 한 달여를 뜨겁게 달구었다. 내년에는 같은 이름의 심화과정을 통해 곳곳에 숨겨진 부산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시민기록 전문가들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지난 가을에는 <부산기록축제>를 열고 전국의 기록관련 단체와 기록자들이 모여 그야말로 축제를 치러냈다. 각 지역에서 진행한 기록의 성과들이 공유되었고,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기록의 방법들이 사흘 내내 심 없이 쏟아져 나왔다. 변방에 있었던 듯한 기록학이 이렇게 큰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구나 싶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은 '기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메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은 부산과 관련된 도서들이 잘 보관된 도서관이고, 또 쾌적한 열람실이기도 하다. 1층 로비는 꽤 괜찮은 공연장이고, 또 열띤 토론과 강연의 인문학살롱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쉬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니, 메일링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별관은 옛 미문화원 자리라는 한정된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용두산공원과 중앙성당, 한성1918, 중구문화원과 부산기상관측소 등 역사와 연륜으로 따지면 뒤지지 않는 건축물들이 주변에 산재한다. 오래된 골목들마다 이야기가 숨어있다가 불쑥 나타나 사람을 놀래킨다. 부산근현대역사관의 비공식 별관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셈. 시민들과 함께 원도심을 둘러보는 것은 이제 무시로 펼쳐질 프로그램이다. 다리 건너 영도에도 오래된 삶의 냄새들이 배어있는지라 <장소로 기억하는 당신의 부산 '영도편'>을 통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수집하고 또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산 곳곳을 찾아다닐 것이며, 또 시민들에게 수시로 초대장을 보낼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기억일 수는 없었던 공간이 이제 우리들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왔으니, 오래오래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별관 공간이 되길 바란다.

• 운영시간/화~일요일 오전 9:00~오후 6:00(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051-607-8001, www.busan.go.kr/mmch, @bmch_museum

INVITATION TO THE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E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S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 2774- 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E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C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H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부산시립교향악단-최수열 예술감독 6년간의 동행을 마무리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IV (*제606회 정기연주회 오프리허설)

일시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연진 최수열(예술감독), 부산시립교향악단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6회 정기연주회 영웅의 생애 Part and Strauss

일시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연진 최수열(예술감독), 부산시립교향악단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최수열 예술감독이 이번 제606회 정기연주회를 마지막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6년간의 동행을 마무리한다.

지난 2017년 9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1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최수열 지휘자는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과 아카데미화하면서도 창의적인 프로그래밍으로 인정받으며, 함께 하는 연주자들을 먼저 배려하면서도 책임감을 잃지 않는 리더십을 지닌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취임 후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 사이클(2017년~2019년)에 이어 라벨의 관현악곡 전곡 사이클(2020년~2022년)을 국내 최초로 도전하여 성공적으로 완주한 바 있다. 최수열 예술감독이 올해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기획한 '6 Last Works'에서는 부산시민과의 이별을 앞두고 감사와 아쉬움을 담아 작곡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예술감독으로서의 마지막 무대

'6 Last Works'의 마지막 무대이기도 한 이번 무대에서 최수열 예술감독은 자화상과도 같은 R. 슈트라우스의 마지막 교향시 '영웅의 생애'를 연주한다. 지난 2018년 제544회 정기연주회(10월 19일)에서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던 '영웅의 생애'는 슈트라우스의 놀라운 창조력과 노골적인 자의식을 전면에 드러낸, 여러모로 한 시대를 마감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감동의 무대를 부산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영웅의 생애'에 앞서서는 21세기 가장 많이 연주되는 '생존 작곡가'인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의 '벤자민 브리튼을 기리는 칸투스'를 들려준다. 패르트가 '놀랍도록 순수한 음악'이라며 존경하던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죽음을 추모하며 1977년 작곡한 곡으로, 그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준 작품이다.

지휘자로서의 청춘을 갈아 넣었던 시간

제606회 정기연주회를 마지막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떠나는 최수열 예술감독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만났다. 최수열 예술감독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있었던 지난 6년이 “인생에서 지휘자로서의 청춘을 갈아 넣었던 시간”이라며 “모두가 박수 쳐줄 수 있을 때 기분 좋게 떠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60여 년 시간 중 매우 중요한 시기에 책임을 맡았다는 건 큰 영광이었다”는 최수열 예술감독은 “지역인들에게 사랑받는 오케스트라가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은 행운”이라며 “부산시립교향악단을 꾸준히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예술감독으로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마지막 무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6년간을 마무리하며 소회가 어떠신지요?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의 부지휘자 활동이 인생의 첫 번째 정식 직장이었다면,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한 악단을 책임지는 감독의 역할을 처음으로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른 여덟에 시작해서 이제 마흔 네 살이 되었으니, 이 일을 하면서 제 나이의 앞 자리 숫자가 바뀌었네요. 인생에서 지휘자로서의 청춘을 갈아 넣었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감독 취임 후 부산시립교향악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난 6년을 평가한다면?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22년에 창단 6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오케스트라이지만, 그 전통에 비해서 안정적인 조직감과 명확한 개성, 부산이라는 도시에 걸맞는 세련됨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는 악단을 만드는 노력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지만, 임기 전에 비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 박지영

것은 아무래도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는 단원들이 잘 알 겁니다. 또한 악단의 연주력도 무척 중요하지만 멤버원보다는 온라인이 되는 것이 저에게는 악단의 지향점이고 보다 의미있는 일이었기에, 독특하고 개성있는 프로그래밍으로 관객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남녀노소, 타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다양한 관객층이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를 보러 찾아오는 모습들도 확인하면서, 이제는 오케스트라의 여러 가지 틀이 예전보다는 제법 갖춰진 것 같다고 자평합니다.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히 올 해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연주회를 할 때마다 이전 단원들과 손발이 잘 맞는구나, 뭐든 예전보다 훨씬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를 느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6년동안 시행착오를 거치고 거쳐서 쌓아온,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할 만해진 상태에서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세 번의 계약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규칙은 지금 제가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고, 그래서 이런 기분 좋은 상황에 떠나는 것을 오히려 행복이라 생각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일 잘 할 수 있는 시기에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좀 낯설긴 하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죠.

예술감독으로서 마지막 무대가 12월 14일 열리는 제606회 정기연주회 ‘영웅의 생애’입니다. 감독님이 기획한 첫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슈트라우스 작품을 선택하셨는데요, 선곡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요?

혹자는 저의 마지막 음악회니까 자전적인 의미로 ‘영웅의 생애’를 고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웃음), 실제로 친한 지인들에게는 사실은 내가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음악회라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니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저는 6년 3개월 전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슈트라우스의 교향시로 문을 열었고, 이미 그 때부터 ‘영웅의 생애’를 마지막 곡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동안 전곡 사이클을 거치고, 중요한 순간마다 무대에 올렸던 슈트라우스의 교향시는 이제는 부산시향의 무기이자 저의 장기도 되었습니다. 교향시의 집대성적인 성격의 작품인 ‘영웅의 생애’가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협주곡이 없는 프로그램이지만, 악장이 솔로주자의 역할도 하는 이 작품을 통해 결국 오케스트라 자체가 철저히 주인공인 음악회로 마무리 하고 싶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60년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 기념비적인 시기에 감독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6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한 부산시립교향악단에 대해 말씀 해주신다면?

부산시립교향악단의 60여 년의 시간 중 매우 중요한 시기에 책임을 맡았다는 건 큰 영광이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의 경험에 자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지금껏 부산시립

교향악단의 많은 전성기가 있었겠지만, 진짜 최고의 전성기가 제가 떠난 이후에 펼쳐진다면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악단을 다듬었던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것 같네요.

취임하신 후 <예술의초대> 인터뷰에서 “취임연주회 보다는 퇴임연주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사랑해 주신 부산의 음악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면?

우리 시대의 많은 분야에서 시작이 화려하나 안 좋은 모습으로 끝맺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모두가 박수 쳐줄 수 있을 때 기분 좋게 떠날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모습이 저다운 작별이라서 기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느낌의 미학을 선사하는 순수예술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죠. 지역에 지역인들에게 사랑받는 오케스트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을 꾸준히 지지해 주시고, 이 악단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과 치유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오면서 계약 조건에 제가 직접 나서서 꼭 넣어달라고 주장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아예 부산시민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예술감독이 되기 싫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부산시민으로서의 삶을 동경했던 부분이 더 컸습니다. 매력 넘치는 이 도시를 틈날 때마다 참 많이 걷고 또 눈에 담았습니다. 예술감독직의 끝맺음과 더불어 지난 6년동안의 저의 부산시민 생활도 마무리하게 되네요. 즐겁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코데타

-최수열 예술감독을 보내며

서사라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내가 최수열 예술감독의 지휘를 처음 접한 것은 2018년 10월 19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4회 정기연주회 '황제 VS 영웅' 연주 때였다. 김선욱 피아니스트가 협연했던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 열정적이면서도 절제된 모습으로 지휘하는 최수열 예술감독의 뒷모습에선 마치 어떠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한동안 찾지 않았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을 그 연주를 기점으로 매년 정기연주회 때마다 찾았다. 뭐랄까, 연주를 들 때마다 새로운 모습의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만나게 되는 것만 같았다. 올해까지 햇수로 치면 6년째이다. 그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전곡 연주 사이클을 함께 했고, 코로나19 시기를 함께 지나오고 드디어 엔데믹을 맞이하게 되었다.

최수열 예술감독과 그가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응원하고자, 또 좋은 연주회에서 연주를 듣고자 매년 교향악축제 때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 예술의전당을 찾고는 했다(내 지인은 실제로 나를 부산시립교향악단 관계자로 안다. 하하). 최수열 예술감독의 자서전 '젊은 마에스트로의 코데타'까지 서점에서 찾아볼 정도로 팬이 되었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최수열 예술감독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떠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쉽기만 하다.

최수열 예술감독이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취임한 뒤 지금까지 관객 중 한명으로 지켜보며 느낀 변화는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우선 양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객이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의 폭을 크게 넓혔다는 것이다. 클래식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잘 알려진 작곡가들 이외에도 심야음악회에서 현대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는 느낌이었다. 본인이 자서전에서 밝혔듯 현대음악하면 관객들은 어렵거나 난해한 음악만을 생각하는데, 연주회장에서 설명과 함께 들으며 또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었고, 또 다른 현대음악에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실내악 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몇 백년전 유럽에서 열렸을 '살롱 음악회'에 참여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부산시향의 '줌인'으로 여러 연주자들의 독주 실력 또한 즐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시그니처 코스처럼 자리잡은 '심포니아-미완성음악화-정기연주회'로 이어지는 3일 연속 집중 코스를 통해 클래식 마니아와 입문자 모두에게 곡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부산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애정을 듬뿍 가질 수 있게 했다.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클래식 마니아 친구들에게 이 '3일 코스'에 대해 이야기하면 매우 부러워한다. 연주되는 교향곡과 작곡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을 듣고 감상하고, 오픈 리허설을 보고, 그리고 그 둘을 합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3일이라니.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게 되면 다소 산만해지거나 그 중 몇가지는 흐지부지 되기 쉽다. 그러나 꾸준히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정착될 때까지 예술감독으로





애썼을 그의 노력을 우리는 안다.

또한 질적인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클래식 전문가는 아닐 뿐더러 감상을 즐기는 아마추어 애호가로서 2018년에 들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사운드와 지금, 2023년의 사운드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픈 리허설에서 보았듯 단원들의 기량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지휘자의 역량 또한 크게 한 몫하지 않았을까. 가끔 다른 지역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를 들으러 오는 지인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다들 확실히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실력이 올 때마다 좋아진다고 부산에 살아서 좋겠다고 입을 모아 칭찬한다.

그리고 올해의 예술가 제도를 도입해 부산시민들에게 정상급 음악가의 연주를 보다 자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첫 해인 2021년, 김택수 작곡가부터(‘짤!’ 뮤직비디오는 정말 최고다) 2022년 ‘인모니니’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와(이 해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가 우승하면서 흑시 최수열 예술감독이 ‘우승 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썰이 돌기도 했다)

올해 명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를 보여주었던 손민수 피아니스트까지, 놀라운 음악가 큐레이션을 보여주었다.

잠시 2022 교향악축제의 장면으로 돌아가보자면 존 케이지의 ‘4분 33초’가 부산시립교향악단 래퍼토리에 들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궁금증을 자아냈다. 나 또한 침묵속의 4분 33초를 기대했는데, 그 해 올해의 예술가였던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서 가만히 서 있는, 말 그대로 침묵의 1악장이 지나고, 2악장이 시작되면서 박수와 발 구르는 소리, 휴대폰 벨소리, 그리고 객석 어디선가 대망의 ‘아리랑’이 터져나오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만의 4분 33초가 완성되었다. 이 또한 최수열 예술감독의 고민과 위트있는 해석에서 나온 연주 아니었을까. 존 케이지가 무덤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낼 법한 연주였지 않았을까.

부산시립교향악단만의 독특한 전통을 만든 것 또한 최수열 예술감독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 연주를 마치고 나와서 로비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현대곡 또는 초연되는 곡의 악보를 들어보이는 것과 그 자리에 작곡가가 있을 때 소개해주는 시간도, 정기연주회 때 연주자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도, 퇴직하는 단원을 위해 열가의 ‘님로드’를 연주하는 것도, 인사 마지막에 단원 모두가 90도로 인사하는 것도.

그를 떠나보내는 짧은 글을 쓰며 돌이켜보니 최수열 예술감독이 없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놓았구나. 그가 없이도 그가 탄탄히 만들어 둔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우리의 연주는 이어지겠지만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더 좋은 변화를 기대하는 욕심에 자꾸 그가 남아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또한 아주 많이 남는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산시립교향악단에 긍정적이고 큰 성장을 가져다 주었듯 그의 앞길에도 큰 성장의 발걸음이 있기를, 부산시향에 새로운 길과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었듯 그에게도 새로운 길과 도전의 기회가 계속해서 열리길, 그리고 훗날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돌이켜보며 함께해서 참 좋은 악단이었다고 추억해 주길. 최수열 예술감독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국립오페라단 초청 신예성악가와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지휘 장윤성



해설 장일범

◆ **국립오페라단이 선택한 차세대 신진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무대가 12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오페라단이 차세대 오페라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국립오페라 스튜디오 출신의 성악가들을 비롯해 실력있는 신예성악가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한국 오페라계의 새로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이다. 국립오페라단이 지난 2021년 설립한 국립오페라 스튜디오는 독자적인 전문 교육시스템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뛰어난 기량이 입증된 단원에게는 무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공연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

지휘자 장윤성이 지휘하는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14명의 신진 성악가들이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친절한 해설로 오페라 명곡들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김은영은 동의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2022년, 2023년 스튜디오 단원을, 남예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2023년 스튜디오 단원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박지호는 국립오페라단의 '마술피리'에서 '밤의 여왕'역으로 출연했으며 현

재 스튜디오 단원으로 있다. 2021년 스튜디오 단원을 역임한 오예은은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2023년 스튜디오 단원을 역임한 주선영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으며, 메조소프라노 강인선은 가톨릭대학교 성악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과 전문사과정을 졸업하고 국립합창단 준단원과 2023년 스튜디오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3년 스튜디오 단원을 역임한 테너 김상준과 신엽은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각각 졸업했으며,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맨하탄 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바리톤 박지민은 2021년, 2022년 스튜디오 단원을 역임하고 서울시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 무대에 선 바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를 졸업한 바리톤 최준영과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베이스 임태수는 각각 2021년, 2023년 스튜디오 단원을 역임했다. 이밖에 테너 박지훈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제22회 국립오페라단콩쿠르 대상, 제39회 대구성악콩쿠르 최우수상을, 테너 정현우는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2021 국립오페라단 성악콩쿠르 금상, 2021 파파로티성악콩쿠르 대상을, 현재 국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바리톤 정태준은 제40회 벨베데레국제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한 실력있는 차세대 성악가들이 함께 출연한다.

일 시 12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_디딤 & STEP 수상작 컬렉션 김미란의 위로 We-路



◆ 부산시립무용단이 안무가를 향해 한 걸음(STEP) 옮겨 걷고자 하는 단원들의 든든한 디딤이 되고자 기획한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_디딤 & STEP’ 2023년 무대가 12월 8일과 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_디딤 & STEP’는 부산시립무용단의 고유성과 정통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단원들의 뛰어난 춤 기량에 더하여 안무가로서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을 맞은 올해 무대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작품활동을 펼쳐왔던 단원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미는 ‘수상작 컬렉션’에 이어 비상임 단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댄서가 말하다’로 진행된다.

이번 ‘수상작 컬렉션’의 주인공은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단원으로 있는 김미란으로, 올해 8월 제29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에서 ‘2023 창무프라이즈’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중(中)독-독 안의 여자’를 무대에 올린다.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원로 한국무용가 김매자가 설립한 창무예술원이 1993년 시작한 공연예술 축제로, 3년 전부터 새로운 창작 춤 발굴 무대인 ‘창무프라이즈’를 진행하고 있다.

‘중(中)독-독 안의 여자’는 삶의 양면 중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한 면을 버릴 수 없는 중독 같은 삶을 다룬 작품으로, 행복은 결국 독 안과 독 밖이 아닌 결국 본인에게 귀결됨을 이야기한다.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박지영의 피리 연주에 최의옥 수석단원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1997년 부산시립무용단에 입단한 김미란은 부산대학교 무용학과와 경성대학교 석사(교육학), 부산대학교 박사(미학) 과정을 졸업하고 ‘학연화대합설무(鶴蓮花臺合設舞)’ 이수자, Dance Theater ‘엇’ 예술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13회 창무예술회 주최 신인 안무가전, 제53회 처용문화제(어여쁘소서)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수상작인 ‘꽃을 꺾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여쁘소서’를 비롯하여 꾸준히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댄서가 말하다’에서는 김미란의 안무작 중 ‘꽃을 꺾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어리 춘앵’, ‘선물’, ‘뉘전’ 등에 출연한 비상임단원 김지윤, 손상진, 김하림, 박정원의 춤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비상임단원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갖는 무대로, 아쉬운 작별과 함께 춤의 언어를 통해 부산시립무용단 춤꾼으로서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한다. 최윤정 상임단원이 함께하며, 연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이세호 단원이 맡는다.

일 시 12월 8일 금요일 오후 8:00, 9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bmdc.com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3회 정기연주회

2023 송년음악회



◆ **전통의 가치를 높이고 창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련한 '2023 송년음악회'가 12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예술감독 이동훈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동서양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섬세하고 파워풀한 무대로,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송년무대를 위해 프로그레시브록을 기반으로 국악, 사이키델릭, 하드록, 메탈 등 동서양의 다양함이 공존하는 연주를 들려주는 밴드 '동양고주파'와 경기민요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구축한 '춤추는 소리꾼' 이희문이 부산을 찾는다.

우선 첫 곡으로는 지난 1994년 초연된 후 지금까지도 국악관현악 명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백대웅 곡 '남도아리랑'을 들려준다. 이어서는 경기지역 토속소리와 카자흐스탄의 민요 음계를 바탕으로, 남사당놀이 광대의 삶을 노래한 '꿈꾸는 광대'를 연주한다. 원래 이 곡은 대금과 플루트를 접목시킨 개량악기인 통일대금을 위한 협주곡이었으나 이번 무대에서는 장예지의 플루트 협연으로 연주된다. 플루티스트 장예지는 앙상블 라이덴샤프트,

부산현대음악앙상블, 앙상블 튜의 멤버로 솔로뿐 아니라 다양한 편성의 앙상블, 오케스트라 영역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동양고주파'가 들려주는 밴드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Heart of Storm'(이정호 곡)으로, 장도혁(퍼커션), 윤은화(양금), 함민휘(베이스)의 역동적인 연주로 관객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희문과 농놈(조원석, 양진수)은 창작 신민요 '어허구자-나리소사-어랑브루지-허송세월 말어라'로 관객과 만난다. 이 곡은 경기·서울굿 중 '신장거리'와 '당악', 경기민요 '사발가'와 '장기타령', 강원도민요 '어랑타령'을 화려한 선율과 재즈 화성, 그리고 록, 블루스, 스윙, 펑키 리듬 등의 현대적인 리듬으로 만든 사이키델릭 신민요로, 원래는 밴드 연주에 맞춰 불렀던 노래를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한 사운드로 새롭게 편곡하여 들려준다.

이번 송년무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곡은 손다혜 곡 '그대, 꽃을 피우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영웅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작곡된 곡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웅들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

일 시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렛미플라이**



◆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감동을 이끌어내며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뮤지컬 ‘렛미플라이’가 부산을 찾는다.**

2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 ‘렛미플라이’는 ‘최근 창작 뮤지컬 초연 중 독보적이다’(KOPIS), ‘인생에서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준 일상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글로벌이코노믹) 등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그 해 제7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작품상(400석 미만 부문)과 작곡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하며 2022년 최고의 창작뮤지컬로 주목받았다.

극의 시작은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 쏘아 올려진 1969년의 밤. 동네 최고의 수선 장인 남원은 편지 한 통을 받으며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에 한발짝 다가선다. 사랑하는 정분이와의 멋진 내일을 꿈꾸던 남원은 점점 커지는 달에 놀라 쓰러지고, 그가 다시 눈을 뜬 것은 2020년의 어느날.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한 남원 앞에 ‘영감, 지금은 2020년이고 우린 70살이야’ 말하는 선희 할머니가 나타나고, 어떻게든 사랑하는 정분이가 있는 1969년으로 돌아가기 위한 남원의 미래 탐사가 시작된다.

이번 작품은 70세 할아버지가 된 남원이 과거로 돌아가기 위

한 미래탐사 작업에 돌입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철없는 남원과 그를 바라보는 선희 할머니, 남원의 단 하나의 사랑 정분이가 과거와 미래, 현재를 넘나드는 소동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특히 이번 무대는 배우 박보검이 데뷔 후 처음 도전하는 뮤지컬이자 제대 후 복귀작으로 선택하여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 외에도 출연 배우들의 면면이 화려한데, 최근 뮤지컬 ‘서편제’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한과 초연 당시 한국뮤지컬어워즈 신인남우상을 수상한 이형훈이 함께 ‘노인 남원’ 역을 맡았으며, 뮤지컬 ‘아이디’, ‘지킬앤하이드’ 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윤공주와 방진이가 ‘선희’ 역으로 출연한다. ‘청년 남원’ 역으로는 박보검과 함께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전설의 리틀 농구단’ 등으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있는 안지환이 맡았으며, ‘정분’ 역으로는 초연부터 함께한 나하나, 홍지희가 캐스팅되었다.

이번 ‘렛미플라이’는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재)부산문화회관이 공모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공연과 더불어 민찬홍 작곡가, 조민형 작가와 함께하는 뮤지컬 창작 마스터클래스(가제)가 개최된다.

일 시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16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5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지휘 천경필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양승엽



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12월 16일,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지난 1973년 3월 창단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그동안 국내외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합창 발전에 기여해왔다. 2005년 APEC정상회의 정상만찬축하공연에 참가하며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8년 에스토니아 독립 100주년을 맞아 외교부 파견 공연단으로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공연을 가졌으며, 이듬해인 2019년에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 초청받아 문화도시 부산을 알리는 등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2012년 독일 할레에서 개최된 합창페스티벌에서는 현대합창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2017년 발리에서 열린 발리국제합창제에서는 틴에이지, 민속 경연대회 2개 부문 금메달과 챔피언십 2개 부문 금메달, 심사위원 예술특별상 등 6개 부분에서 수상하며 국위선양을 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 청소년 합창음악을 선도해온 천경필 제6대 수석지휘자와 함께

50여 명의 합창단원이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최고의 합창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청아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아카펠라 음악에서부터 전통적인 안무와 기악의 화려한 반주로 들려주는 한국민요합창, 그리고 단원들의 발랄한 율동을 더한 크리스마스 메들리로 송년의 분위기를 더한다. 특히 창단 5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거쳐간 선배단원들과 함께 다채로운 창작곡으로 합창단의 새로운 50년을 노래한다.

여기에 2013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특별상, 2015년 뮤지컬 최고 여우신인상 등을 수상하고 뮤지컬 '팬텀'의 여주인공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소프라노 김순영과 2002 한일 월드컵 기념 이태리 국회 초청 음악회, 이태리 rietti teatro 초청공연, 중국 상하이 한중 교류음악회,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원 콘서트 등 국내외 다수 음악회와 오페라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양승엽의 특별무대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대학교 성악전공 재학생들이 출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 50주년을 축하하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일 시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천원, S석 2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 **2021년 부산시립예술단 4개 단체 연합공연으로 첫선을 보인 '크리스마스 캐롤' 앵콜 마지막 무대가 12월 21일부터 3일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찰스 디킨즈 원작 '크리스마스 캐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크리스마스 캐롤'은 극을 이끌어가는 부산시립극단을 비롯해 시립합창단,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160여 명의 출연진이 참가하는 대작으로,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초연,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이야기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공연되는 작품으로 꼽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자신을 찾아온 혼령들을 만나 자신의 인생 속 크리스마스를 체험한 후, 반성하고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재구성하고 작사, 연출을 맡아 기존 작품의 틀을 깨고 스크루지 영감이 아닌 메리 스크루지 할머니로 각색되어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음악은 작곡가 백현주가 총 18곡의 합창 넘버를 비롯해 웅장하고도 화려한 전곡을 작곡, 융복합 공연의 매력을 이끌어내고, 부산시립합창단 이기선 예술감독이 부산

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지휘,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준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2021년 초연 이후 지난해 가진 첫 앵콜무대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연말 온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산시립예술단 브랜드 공연의 가능성을 열어준 바 있다. 두번째 앵콜무대를 준비하는 출연진, 스태프들도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다. 메리 스크루지를 맡은 시립극단 수석 이현주를 비롯해 부산시립극단 전 단원들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웅장하고 때로는 감미로운 합창 넘버, 청소년교향악단의 라이브 연주, 스토리와 어우러지는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지역의 객원 배우와 무용수들이 부산시립예술단과 호흡을 맞추며 연합공연의 의미를 살려준다.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망엽서쓰기 이벤트, 크리스마스 캐롤 공연관람을 추억 할 수 있는 포토부스 사진촬영 이벤트, 크리스마스 트리 배경 인증샷 이벤트 등 가족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 시 12월 21일-22일 목-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만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4인 가족 이상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벚꽃동산**



◆ **리얼리즘 연극의 걸작 ‘벚꽃동산’이 1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벚꽃동산’은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극작가라 평가받는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안톤 체홉의 유작으로, 특히 그의 4대 장막극이라 불리는 ‘갈매기’, ‘바나 아저씨’, ‘세자매’와 더불어 러시아 근대 리얼리즘을 완성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체홉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걸작이라 평가받는 ‘벚꽃동산’은 귀족과 농노로 구분된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 가치가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러시아 말기를 배경으로, 몰락한 귀족 가문을 통해 격변하는 시대상과 가치관의 혼돈을 그려내고 있다. 작품 속에는 귀족과 지식인, 평민, 농노의 아들, 시종 등 여러 계급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희비를 통해 사실주의 연극의 정수로 불리며 오늘날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극은 막대한 빚으로 대대손손 관리해오던 영지를 팔아야 할 위기에 처한 여 지주(地主) 라네프스까야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5년만에 파리에서 돌아온 라네프스까야는 그녀의 집안 대대로 내려온 영지인 벚꽃동산의 아름다움에 압도되고 어린 시절의 향수에 젖는다. 그러나 영지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

태이고 농노의 아들이지만 현재는 성공한 사업가인 로빠힌이 영지를 사들이게 된다. 결국은 라네프스까야와 가족들은 영지를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벚꽃동산의 벚나무를 찍어내리는 도끼소리와 함께 막이 내린다.

특히 이번 작품은 정신분석을 적용하여 체홉의 희곡을 명징하게 재해석해온 경성대학교 이기호 교수가 연출하고, 부산의 대표적인 극단인 극연구집단 시나위의 무대로 선보인다. 지난 1997년 지역의 젊은 연극인들이 ‘연기에 대한, 연극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모색’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창단한 극연구집단 시나위는 그동안 배우들 중심의 공동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면서 수준 높은 창작무대를 선보여왔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21년 창단 26주년을 맞은 극연구집단 시나위가 창작극 위주의 평소 작업에서 벗어나 새롭게 기획한 ‘명작시리즈’로, 이기호 연출가와 함께 그 해 ‘갈매기’를 시작으로 2022년 ‘벚꽃동산’, 2023년 ‘세자매’ 등 체홉의 대표작들을 무대에 올려왔다. 지난해 무대에서도 체홉의 완성도 높은 희곡에 이기호 연출가만의 해석과 연출, 그리고 부산의 기성 및 신인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일 시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14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III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 이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짐머만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부산을 찾는다.

(재)부산문화회관의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마지막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는 '건반 위의 완벽주의자' 크리스티안 짐머만은 지난해 3년만에 열린 내한공연에서 서울에서만 무려 3회의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국내 관객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쇼팽의 고향,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답게 그의 나이 열여덟이 되던 해에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상을 수상하며 명성을 얻기 시작한 짐머만은 이후 솔리스트로서의 활동 외에도 기돈 크레머, 정경화, 예후디 메뉴인과 같은 뛰어난 음악인들과 함께 실내악 파트너십을 이루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레너드 번스타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세이지 오자와, 리카르도 무티, 로렌 마젤, 앙드레 프레빈, 피에르 불레즈, 주빈 메타, 스타니스와프 스크로바체프스키, 사이먼 래틀 경과 같은 명 지휘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도이치 그라모폰과의 오랜 작업 기간 끝에 수많은 음반들이 세계적 권위의 음반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에는 BBC 매거진에서 발표한 역사상 최고의 피아니스트 순위에서 11위에 오르며 남다른 그의 위상을 입증하기도 했다.

특히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완벽주의자인 짐머만은 그의 모든 리사이틀 공연에 본인이 소유한 피아노로 연주한다. 공연을 하기에 앞서 자그마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모든 방해 요소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의 기질에서 비롯된 관행으로, 피아노 제작에 있어서도 물론 여타 전문가 못지않은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피아노를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 누구보다도 진심이 느껴지는 연주자인만큼, 그의 음악에서는 순수성이 돋보이며 추가적인 해석을 덧붙이기 보다는 음악자체에서 드러나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연주를 통해 구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짐머만은 그의 재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쇼팽의 녹턴 제2번과 제5번, 제16번, 제18번과 피아노 소나타 제2번으로 1부 무대를 꾸민다. 2부에서는 드뷔시 'Estampes(판화)'와 지난해 발매된 음반 '시마노프스키 피아노作品集'에도 수록되었던 폴란드의 작곡가 시마노프스키의 '폴란드 민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10'을 만날 수 있다. 이미 거장의 반열에 선 연주자이지만 완벽한 무대를 위해 철저한 준비성으로 무장한 짐머만의 연주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관객들에게 따스한 위로로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 시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7만원, S석 13만원, A석 10만원, B석 7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매에 한해 5%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접힘과 펼쳐짐의 춤적 상징과 은유

허경미무용단 -무무 <길을 잃다>

◆ 최찬열 춤비평가

인간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지듯 태어난 존재이다. 하지만 미래를 향해 죽을 때까지 고독하게 자기 자신을 창조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인생은 하나의 여행길에 비유되곤 한다. 칙칙 같은 겨울 밤 한 줄기 빛도 없는 세상에서 길을 찾아 헤매며 세상과 끝없이 갈등하고 투쟁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기나긴 여정이 인생인 셈이다. 허경미무용단-무무의 <길을 잃다>(2023년 11월 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는 이런 인생길을 홀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부유하는 삶을 춤과 음악, 오브제와 조명이 잘 어우러진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투명막이 무대 전면에 내려와 있고, 그 뒤로 어슴푸레하게 무대가 드러나 보인다. 하늘-막과 다리-막이 다 올라간 채 다소 쓸쓸년스럽게 보이는 무대 중앙에 탑 조명을 받으며 한 춤꾼이 우두커니 서 있다.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선 실존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녀 주위로는 영킨 천이 구불구불 놓여있다. 마치 야생의 들판을 가르며 이어지는 들길처럼 보인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곧이어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한 다른 춤꾼 한 명이 무대 가장자리를 빙 돌더니 그녀 뒤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연이어 등장한 다른 춤꾼들과 함께 무대 여기저기 흩어져 춤추지만, 그녀는 이들과 무관하게 마냥 서 있다. 세상사에 무관심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상념에 젖은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다 서서히 주변을 살피던 그녀가 허리를 숙인 채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리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여의찮은 듯 머뭇머뭇하다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마음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밖을 향해 달려 나가지도 않는 실

존의 모습이다. 자신의 자유 앞에서, 가능성 앞에서, 아직 오직 많은 미래 앞에서 느끼는 망설임과 주저함일 것이다.

곧이어 무대 양옆에서 다시 등장한 군무는 영킨 천을 집어 들더니 가지런하게 편다. 그리고 투명막이 올라가면서 무대 전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흰 천 위에서 뒹굴다가 일어나 앉는다. 어느덧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선 것이다. 이른바 타자들과 다방면으로 열린 관계를 맺으며 공존하는 세상이다. 말하자면 무대 바닥을 다 덮은 채 새하얗게 깔린 천은 실존이 살아야 할 세상이고, 누구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이는 평생을 잉여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득 누군가 대사를 한다. “함께 갈 수 있지.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아니 여기.” 그리고 다 같이 모여 한쪽 발을 든 채 가만히 서 있다가, 든 발을 털고 다른 발에 비비더니 우뚝 서 있다. 가기는 가야 하는지, 간다면 혼자 가는지 아니면 함께 가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태도를 정하지 못하는 이들의 심정이 잘 묻어나는 인상적인 제스처이다.

다음 장면은 접힘과 펼쳐짐의 춤적 상징과 은유가 돋보인다. 그녀가 깔린 천을 걷는다. 그러면 다른 이들이 천을 편다. 그들은 가지런하게 질서 잡힌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녀는 다시 천을 헝클어 바닥에 놓아 밟는다. 이어서 다른 이들이 재차 천을 퍼면 그녀는 그 위에서 미끄러지듯 오가다가 또 다시 천을 영킨다. 이윽고 무대 오른쪽에 일렬로 앉은 군무가 일제히 두 손을 들었다가 무대 바닥을 두 번 치고, 천을 거둬들이는 일사불란한 행동을 반복하면, 천 위에서 걷고, 뛰면서 오가던 그녀는 쓰러져 천을 부여잡고 끌려가다가, 뒷걸음칠 치고, 시나브로 천이 걸리며 무

대 바닥이 다 드러난다. 요컨대 천은 엉클어졌다가 펴지기를 반복한다. 즉 접힘과 펼쳐짐이 맞버티는 긴장 국면이 한동안 이어지는 것이다.

천의 접힘은 내면에 머물리고, 펼쳐짐은 외면으로 열림이다. 즉 접힘은 오롯이 나에게만 마음 쓰는 것, 주름진 내면 삶에 침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 현재가 차곡차곡 쟁여져 있고, 지금 현재가 웅크리고 앉아 있으며, 다가올 현재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펼쳐짐은 열린 관계로 나아감 혹은 타자와 '함께 있음'의 관계로 들어감이다. 열림은 곧 타자와 나를 가르는 불연속이 허물어지고 공-현존의 차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관계 맺기이다. 펼침, 열림, 만남으로 가득 찬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고, 삶은 그 자체가 접힘과 펼쳐짐의 행위 예술인 것이다. 천을 펴면 세상은 매끄러운 공간이 되고, 엉켜 놓이면 거기에 흠 파인 길이 생긴다. 그리고 삶이란 끊임없

이 머뭇과 열림을 반복하는 것이다. 요컨대 접힘과 펼쳐짐을 반복하는 천의 주름 운동에 따라 길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되풀이하고, 이는 곧 마음의 안팎을 오가며 이랬다저랬다 요동치는, 실존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장면들에서는 삶의 여러 풍경이 그려진다. 선구자처럼 호기롭게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이도 있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걸어가면,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교정해 주는 이도 있다. 천이 천천히 걷히며 펄럭일 때, 거기에 어지럽게 새겨진 선이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여러 갈래로 오간 이들이 지나친 길의 흔적일 것이다. 또 천의 일부분을 뭉쳐 놓고 그 위에 서서 마치 좌표를 찍듯이 꼭꼭 밟는 이도 보이고, 흐트러져 놓인 천 끝자락에서 허리를 숙인 채 두 팔을 벌려 날갯짓하듯이 움직이는 이도 있다. 다른 세상으로 성큼 나아가고픈 욕구의 표현일 것이다. 삶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세속의 삶을 등지고 수행





길에 오르기를 결심하는 사람 같다. 그러다 무거운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힘들게 천을 어깨에 메고 가다가, 놓인 천 끝자락에서 물구나무서기도 한다. 뒤집힌 세상을 바로 세울 힘이 없어 자신이 거꾸로 선 채 세상을 똑바로 보기도 하는 듯하다.

다시 군무가 등장해 천을 펴면, 울렁거리는 천 위에서 허경미의 솔로 춤이 이어진다. 천은 거친 파도처럼, 사막의 모진 모래바람처럼, 혹은 들판의 거센 바람처럼 거칠게 펄럭이고, 그 사이에서 허경미의 솔로춤이 지속된다. 이윽고 천은 그녀를 덮치고, 그 속에 파묻혀 세상 풍파를 다 맞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던 그녀가 높은 파도처럼 솟아오른 천 꼭대기로 들어 올려진다. 한 실존이 거센 파도가 오르내리는 망망대해의 광포한 풍랑에 휩쓸린 일엽편주에 갇혀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형국이다. 피라미드형 위계 구조의 맨 꼭대기에 올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매달려 발버둥 치며, 모순이 가득 찬 세상을 아등바등 견뎌 나가는 부유하는 실존의 모습이다.

천은 거친 파도처럼, 혹은 세찬 바람처럼 펄럭이다가, 높이 치솟아 절벽이나 가파른 벼랑, 산이 된다. 요컨대 천의 바람-되

기, 절벽-되기, 산-되기 등이 반복되며 천의 의미는 시시때때로 생성 변화한다. 이런 천은 이 공연의 핵심 오브제로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를 배가시키며 이 공연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그러다 조용한 일상이 찾아온 듯 다시 천이 펴지고, 그 위에 선 허경미는 조신하게 나아가다가 달리고, 돌고, 또 달린다. 한 명 두 명 다른 춤꾼들도 연이어 등장하여 성큼성큼 걷다가 돌면서 뛰고, 경충경충 뛰어서 여기저기로 향한다. 곳곳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씩씩한 실존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천을 걷는다. 그리고 뭉쳐서 무대 바닥에 놓고 그 위를 걷는다. 발걸음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 이제 무대에는 뭉쳐진 채 놓인 천 길만 보인다. 이제 그 길을 모두 함께 갈 것인지, 홀로 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접힘과 펼쳐짐은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무심한 한 걸음, 또 시작이다.

<길을 잃다>에서 춤은 시종일관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된다. 즉 춤 만든 이는 길을 찾기 위해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게 나서지 않는다. 그 길이 바깥세상뿐만 아니라, 내면의 길, 마음길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춤은 역동적이고 격정적이라기보다는, 마치 명상하듯, 들뜬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고요하고 차분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비록 춤추는 몸에서 발현되는 정동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더라도, 천의 접힘과 펼쳐짐으로 상징되는 두 세계의 갈등과 맞버팀에서 분출하는 긴장감은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기엔 충분할 만큼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부산문화 회관

에클라 피아노 트리오
음악의 거장들 The Greats 3B

일 시 | 12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에클라 피아노 트리오
010-8272-5306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동문으로, 유학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피아니스트 하승경, 첼리스트 김나라가 귀국 후 바이올리니스트 박주영과 함께 결성한 에클라 피아노 트리오는 2018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월드브릿지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부산시민회관 장애인음악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시리즈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에클라(Eclat)는 '빛의 조각', '열정' 등의 뜻을 지닌 단어로, 한조각의 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연주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의 거장들'이라는 주제로,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바흐(바로크), 베토벤(고전), 브람스(낭만)의 작품을 피아노 트리오 편성으로 들려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2회 정기연주회
볼프강

일 시 | 12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수석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곡으로 꾸민다. 협연을 맡은 플루티스트 조성현은 2019년 연세대학교 관현악과의 최연소 조교수로 전격 발탁되었으며, 현재는 금호솔로이스츠, 일본 산고 플루트 아티스트, 플루트아트센터(FAC)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KV.138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2번 KV.314
모차르트/교향곡 제41번 '주피터'

국립오페라단 초청 신예성악가와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일 시 | 12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오페라단이 차세대 오페라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국립오페라 스튜디오 출신의 성악가들을 비롯해 실력있는 신예성악가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한국 오페라계의 새로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이다.

- 지휘/장윤성 • 해설/장일범
- 연주/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소프라노/김은영, 남예지, 박지호, 주선영, 오예은
- 메조소프라노/강인선
- 테너/김상준, 박지훈, 신엽, 정현우
- 바리톤/박지민, 정태준, 최준영
- 베이스/임태수

2023년 정준수 첼로 독주회

일 시 | 12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Kongnamul 010-6550-6971



늘 새로운 도전과 시도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첼리스트 정준수 독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대학원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준수는 일찍이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중국 등 국내외 무대에서 다수의 독주 및 협연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왔다. 정준수는 2004년 귀국 후 창원, 대전, 포항, 울산시립교향악단 객원수석, 대구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수석, 대구 수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 신포니에타 초빙 수석, 대구 울림 챔버 리더, 부산 솔로이스츠 앙상블 리더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 피아노/성민주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 & STEP
수상작 컬렉션 김미란의 위로 We路

일 시 | 12월 8일 금요일 오후 8:00
9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bmdc.com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던 단원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미는 '수상작 컬렉션'의 주인공은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단원으로 있는 김미란으로, 올해 8월 제29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에서 '2023 창무프라이즈'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중(中)독-독 안의 여자를 무대에 올린다. '댄서가 말하다'에서는 김미란의 안무작에 출연한 비상임단원 김지운, 손상진, 김하림, 박정원이 비상임단원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춤의 언어를 통해 부산시립무용단 춤꾼으로서 지나는 시간을 이야기한다.

김현정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2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현재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현정 독주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독,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에서 석사과정과 Advanced studium, 만하임 국립음대 실내악 Zusatzstudium을 최고점으로 졸업한 김현정은 생상스 서거 100주년, 쇼팽 200주년, 리스트 200주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연주회와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동문음악회, 40인의 피아니스트가 함께하는 2019 DMZ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피아노협주곡 페스티벌, 한국리스트협회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김현정은 현재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부산예중·고에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순국선열을 위한 추모 음악회 레퀴엠

일 시 | 12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유엔평화기념관 합창단 010-2962-1124



유엔평화기념관 합창단과 아첸투스 챔버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순국선열을 위한 추모 음악회 '레퀴엠'.

이번 무대는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축하하는 자리로, 인류 최고의 음악 중 하나로 평가받는 모차르트 '레퀴엠'을 들려준다.

- 단장/한명자 • 지휘/임재우
- 예술감독/이재성 • 악장/안은탁
- 소프라노/박현진 • 메조소프라노/박소연
- 테너/조윤환 • 베이스바리톤/박순기
- 연주/아첸투스 챔버오케스트라
- 합창/유엔평화기념관 합창단, 부산진구 남성합창단

2023 장애예술인 초청공연 행복한 동행, 모두의 예술

일 시 | 12월 9일 토요일 오후 3:0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역의 활동 장애 예술인들을 초청, 더욱 많은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2023 장애예술인 초청공연 '행복한 동행, 모두의 예술'.

발달장애인 심영건(마림바, 고신대 줄)과 이들림(피아노)으로 구성된 심영건&이들림 듀오와 부산부민병원 소속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THE 행복, 지적장애성 장애인으로 구성된 위글위글 합창단, 이지글리 합창단, 성인발달장애를 지닌 11명의 생활체조팀 당나귀(당신은 나사함의 귀한 존재)의 무대가 펼쳐진다.

김승연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지음아트 010-3146-8434



부경챔버오케스트라 단원이자 VIVA 플루트 앙상블, 아르케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승연 독주회.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음악풍

경 청년음악가 선정 리사이틀, 일본 Japan Flute Convention 초청연주 등 다수 무대에 서온 김승연은 소양오케스트라 플루트 파트강사로 있으며 좌천초, 동래여중에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 이안 클라크/최면
- 바흐/함부르크 소나타 사장조 작품 133
-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의한 판타지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중 '카페 1930' 등
- 피아노/이은정 • 기타/고성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3회 정기연주회 2023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예술감독 이동훈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동서양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섬세하고 파워풀한 무대로,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송년무대를 위해 프로그래시브록을 기반으로 국악, 사이키델릭, 하드록, 메탈 등 동서양의 다양함이 공존하는 연주를 들려주는 밴드 '동양고주파'와 경기민요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구축한 '춤추는 소리꾼' 이희문 이 부산을 찾는다.

- 지휘/이동훈(예술감독)
- 플루트/장예지 • 밴드/동양고주파
- 경기민요/이희문과 나눔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IV

일 시 |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오픈 리허설을 통해 제 606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특히 이번 무대는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

로,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와 단원들이 호흡을 하나로 맞추어 가는 과정을 지휘자의 육성으로 직접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전문가 및 클래식 매니아 관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이번 무대에서는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최수열 예술감독의 마지막 무대인 제606회 정기연주회의 메인 프로그램인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주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6회 정기연주회 영웅의 생애

일 시 |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최수열 예술감독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6년간의 동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

올해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기획한 '6 Last Works'에서는 부산시민과의 이별을 앞두고 감사와 아쉬움을 담아 작곡가들의 마

지막 작품을 들려주고 있다.

'6 Last Works'의 마지막 무대이기도 한 이번 무대에서는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아르보 파르트가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죽음을 추모하며 작곡한 '벤자민 브리튼을 기리는 칸투스'와 R.슈트라우스의 마지막 교향시 '영웅의 생애'를 들려준다.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피아니스트 김민정의 콘서트 : amor fati

일 시 |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한국피아노학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피아노음악연주회 회원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민정 독주회.
 어린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각종 콩쿠르에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김민정은 중3때 도미, 월넛 힐예술고와 보스턴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북텍사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민정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추최 베스트 부산음악인 상을 수상하고 매년 독주 및 듀오연주, 협연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비창', '월광', '열정'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랫미플라이

일 시 |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16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감동을 이끌어내며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뮤지컬 '랫미플라이'. 2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 '랫미플라이'는 그 해 제7회 한국뮤지컬어워즈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작품상(400석 미만 부문)과 작곡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하며 2022년 최고의 창작뮤지컬로 주목 받았다. 이번 작품은 70세 할아버지가 된 남원이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미래탐사 작업에 돌입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젊어진 남원과 그를 바라보는 선의 할머니, 남원의 단 하나의 사랑 정분이 과거와 미래, 현재를 넘나드는 소동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김나래 귀국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소리에 깊이와 분위기를 더하는 플루티스트 김나래 독주회.
 경북대학교 음악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도독, 데트몰트 국립음대 석사과정, 뮌스터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플루티스트로서의 역량을 키워 온 김나래는 독일에서 다수의 독주 및 앙상블 연주를 통해 폭넓은 레퍼토리를 쌓았으며, 독일 Yehudi Menuhin 장학재단 Live music now Münsterland 아티스트로도 활동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에서부터 함께 호흡을 맞춘 피아니스트 맹진석과 함께 안톤 베른하르트 피르스테나우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5개의 환상곡 작품 50'을 시작으로 루치아노 베리오, 자크 이베르, 샤를-마리 비도르, 지그프리드 카르크 엘레르트, 세자르 프랑크의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일 시 |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천원, S석 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희망을 노래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청아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아카펠라 음악에서부터 전통적인 안무와 기악의 화려한 반주로 들려주는 한국민요, 그리고 단원들의 발랄한 율동을 더한 크리스마스 메들리로 송년의 분위기를 더한다.
 • 지휘/천경필
 • 소프라노/김순영 • 테너/양승엽
 • 특별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OB단원, 부산대학교 성악과
 • 연주/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We Music Artists 창단연주회

일 시 |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영미 010-2850-3308



부산시예술영재교육원을 수료한 차세대 연주자들로 구성된 We Music Artists의 창단무대.
 We Music Artists는 음악을 통해 서로의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모인 단체로, 이번 창단연주회를 통해 연주자로서 자신의 기량을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며 더 나은 음악인이 되기 위한 동기부여를 얻고자 한다.
 • 바이올린/고건우, 도지윤, 박은서, 이연우
 • 피아노/기태욱, 전기백
 • 첼로/정남헌
 • Perform with 송준섭

김종완 반도네온 작품발표회 IN/EX-HALE '숨'

일 시 | 12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김종완 010-7171-2834



부산을 대표하는 탱고앙상블 '친친탱고' 대표이자 작곡가, 반도네온리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종완의 반도네온 작품발표회.
 숨쉬듯 살아움직이는 반도네온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들을 소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반도네온 솔로작품 'for Bandoneon'에서부터 반도네온 콰텟을 위한 판타지 'Fantasy para quinteto'까지 다채로운 편성으로 그의 작품세계를 접할 수 있다.
 • 작곡, 반도네온/김종완
 • 피아노/이안나 • 바이올린/강소연
 • 퍼커션/이영훈 • 베이스/박재훈

이강현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12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첼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도독,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한 첼리스트 이강현 리사이틀.

제80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에 출연, 평론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신인'을 수상한 이강현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젊은 첼리스트 고티에 카푸송과 루이비통 재단이 주최하는 'Classe d'Excellence de Violoncelle' 시즌 2018/2019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어 루이비통 미술관에서 정기적으로 마스터클래스를 받고 연주했으며, 2019년 7월에는 매해 스위스에서 열리는 베르비에 페스티벌(Verbier Festival) 아카데미에 선정되기도 했다.

- 피아노/요코 쿠와하라

이일세 첼로 리사이틀 Modern Times

일 시 |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첼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이자 부산피아노트리오 멤버, 앙상블코스모폴리탄 음악감독으로 있는 첼리스트 이일세 독주회.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무성영화 제목이기도 한 '모던 타임즈'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이번 무대에서는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던 근·현대 작품들을 쉬운 해설과 함께 청중들에게 소개한다. 특히 평소 접하기 힘든 근·현대 작품들 중에서도 관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곡들로 선별, 근·현대음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음악동반자이자 아내인 피아니스트 박지은이 함께 한다.

프로그램

아르보 패르트/거울 속 거울
 루토스와프스키/무반주 첼로를 위한 6개의 변주곡
 피아졸라/위대한 탱고 등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일 시 | 12월 21일-22일 목-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만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찰스 디킨즈 원작 '크리스마스 캐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크리스마스 캐롤'은 극을 이끌어가는 부산시립극단을 비롯해 시립합창단,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160여 명의 출연진이 참가하는 대작으로,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초연,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한 화제작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재구성하고 작사, 연출을 맡아 기존 작품의 틀을 깨고 스크루지 영감이 아닌 메리 스크루지 할머니로 각색되어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벚꽃동산

일 시 |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14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리얼리즘 연극의 걸작 '벚꽃동산'.

세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극작가라 평가받는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안톤 체홉의 유작으로, 귀족과 농노로 구분된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 가치가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러시아 말기를 배경으로, 몰락한 귀족가문을 통해 격변하는 시대상과 가치관의 혼돈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정신분석을 적용하여 체홉의 희곡을 명징하게 재해석해온 경성대학교 이기호 교수의 연출로, 부산의 대표적인 극단인 극연구 집단 시나위의 무대로 선보인다.

- 윤색, 연출/이기호(경성대학교 교수)

야나체크 스트링 콰르텟 초청연주회

일 시 |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첼버홀**
 입장료 |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A석 3만3천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작곡가 야나체크의 연주법을 완벽의 경지로 올려놓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야나체크 스트링 콰르텟 초청연주회.

1947년 창단 후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체코슬로바키아의 음악적 전통을 이어온 야나체크 스트링 콰르텟은 지난 1955년 투어를 시작한 후 전 세계 55개국에서 연주하며 평론가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1985년 카네기홀에서 열린 '세계 유명 현악4중주단 초청 페스티벌'에서 등 주요 국제 페스티벌에 초청받았다.

프로그램

야나체크/현악4중주 제1번 '크로이처 소나타'
 스메타나/현악4중주 제1번 '나의 생애로부터'
 슈만/피아노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 피아노/케이 경은 김

정전 70주년 기념 유엔평화콘서트 위대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노래

일 시 |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문 의 | 유엔평화기념관 901-1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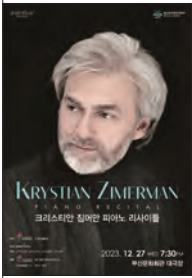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기 마련한 유엔평화 콘서트.

특히 이번 무대는 유엔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무대로, 먼 타국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웠던 그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음을 선포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과 유엔평화싱어즈, BOF오케스트라, 부산주니어뮤지컬단과 개그맨 전유성 등 수많은 출연자들이 출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을 통해 위대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III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7만원, S석 13만원, A석 10만원,
 B석 7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매
 에 한해 5%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건반 위의 완벽주의자’ 크리스티안 짐머만은 (재) 부산문화회관이 기획한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마지막 주인공으로, 지난해 3년 만에 열린 내한공연에서도 서울에서만 무려 3회의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국내 관객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 짐머만은 그의 재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쇼팽의 녹턴 제2번과 제5번, 제16번, 제18번과 피아노소나타 제2번으로 1부 무대를 꾸미며, 2부에서는 드뷔시 ‘Estampes(판화)’와 폴란드의 작곡가 시마노프스키의 ‘폴란드 민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10’을 들려준다.

제6회 김남진피피컬씨어터 정기공연 Nude 누드

일 시 |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1만5천원(미성년자
 관람불가)
 문 의 | 김남진피피컬씨어터 010-9316-7894



브레이크 없는 직설화법으로 특유의 독창적인 안무와 연출을 선보이는 안무가 김남진이 이끄는 김남진피피컬씨어터 정기공연. 1995년 프랑스로 건너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렌느 국립현대무용단(C.C.N.R.B, 1998-2002)에 입단하고, 이후 현대무용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벨기에에 진출, 한국인 최초로 Eastman/Sidi Larbi Cherkaoui(2002-2007)에서 활동한 김남진은 그만의 아주 강한 에너지와 부드러운 움직임의 무용언어에 연극적 요소를 가미, 한국적인 예술색채를 탐구하여 독창적인 현대무용을 창조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한국적 현대무용을 통하여 세계와 만나고 있다.

임태경과 KNN방송교향악단의 특별한 송년음악회

일 시 |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010-7990-9568



2016년 창단 이후 부산, 경남지역의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인재육성의 중심이 되어온 KNN방송교향악단이 부산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송년무대. 지휘자 서희태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컬계의 황태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크로스 오버 테너 임태경과 제28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을 수상한 뮤지컬 배우 박혜민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뮤지컬 넘버 등 다채로운 곡으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2번 3악장 ‘아다지오’
 베토벤/교향곡 제5번 4악장 ‘환희’ 등

조갑용의 판여는 소리

일 시 |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영남성주굿소리보존회
 010-6520-9376



평생을 풍물과 함께 해온 조갑용 명인이 올해 ‘영남성주굿소리보존회’를 창단하고 부산에서 갖는 첫 무대 ‘조갑용의 판여는 소리’.

국립국악원 사물놀이 수석, 경기도립국악원 악장을 역임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 제12차 농악전수조교로 있는 조갑용 선생은 영남 풍물놀이의 독특한 존재로, 이번 무대에서는 영남의 공작은 독특한 소리와 무아지경에 빠져들 기악장단과 춤, 그리고 경기민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조갑용 명인과 평생을 함께해온 장고의 명인 이부산 선생이 함께 한다.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3개의 피아노협주곡

일 시 |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두남재엔터테인먼트
 02-6292-9368, 9370



신들린 듯한 타건과 테크닉, 풍부한 감성 표현으로 사랑받는 러시아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의 무대. 하마마스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롱티보 크레스 팡 콩쿠르 2위, 아서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마스터 콩쿠르 3위 등 세계 유수 콩쿠르를 석권한 라쉬코프스키는 이번 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맞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1번과 제2번, 제3번을 들려준다.

라쉬코프스키는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초빙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지휘/최영선
- 연주/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에델현악사중주단 2023년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와 겨울을 위한 클래식

일 시 |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경로, 학생 50% 할인)
 문 의 | 에델현악사중주단 010-5880-3996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활동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과 손혜림, 비올리스트 강수이, 첼리스트 김혜지로 구성된 에델현악사중주단의 2023년 정기연주회.

팀명인 ‘에델’은 독일어로 ‘우아한’ 또는 ‘품위 있게’라는 뜻으로, 클래식 음악이 지닌 고귀한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하게 전달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에델현악사중주단은 그동안 마루국제음악제, 금정수요음악회, 을숙도 해피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2020년에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가진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국 시리즈 완주를 통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부산시민회관

부산콘서트콰이어 명품합창시리즈 4번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아**

일 시 |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5세 이상 관람)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1992년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첫발을 내딛은 후 현재는 성악 전공 단원들로 구성된 전문 합창단체로 발돋움한 부산콘서트콰이어가 마련하는 명품합창시리즈 네 번째 무대.

상임지휘자 전상철을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콘서트콰이어는 특히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사랑의 나눔 음악회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음악회를 매년 열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김나영, 메조소프라노 손미숙, 카운터테너 김중수, 테너 최원갑, 바리톤 김태우와 함께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들려준다.

- 지휘/전상철 • 오르간/이혜영
- 연주/영아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여자대학교 BWC댄스컴퍼니 사제동행
(師弟同行) 프로젝트 VI **춤-바라보다**

일 시 |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여자대학교 850-3261, aspbwc.ac.kr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에 술무용과 교수들과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들로 구성된 춤 전문단체인 BWC댄스컴퍼니가 마련하는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 여섯 번째 무대.

이 시대 춤 문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창작산실로서 거듭나고자 기획된 '춤-바라보다'는 1부 한국 춤 공연에 이어 2부에서는 현대무용 및 스트리트댄스, 벨리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의 예술감독 및 연출, 안무는 김해성 학과장이 맡았으며, BWC댄스컴퍼니 대표인 김선영을 비롯해 부산여자대학교 무용전공 교수와 현대무용단 '자유' 단원, 강유진 위드무용단 부단장을 비롯한 김해성무용단 및 재학생 50여명이 객원출연한다.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일 시 | 12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크리스마스 캐롤이 함께하는 성탄가족 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이브날, 여김 없이 찾아와 가난한 이들과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 할아버지의 곁에는 언제나 루돌프가 있다. 빨간 코에 볼품

없고 어린 루돌프가 어떻게 제일 앞에서 산타 할아버지의 눈썰매를 끌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남들과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 산타클로스의 믿음 덕분이었다.

특히 이번 무대는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산타마을, 마을광장, 눈 덮인 숲속 등을 표현한 화려한 대막 그림 등 환상적인 무대 연출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수어연극 **배비장전**

일 시 | 12월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장애인 50% 할인)
문 의 | 극단 에파타010-7277-7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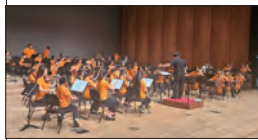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 프로젝트 '눈으로 듣고 손으로 보기'의 일환으로 제작된 수어연극 '배비장전'.

수어통역 봉사자와 청각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1993년 창단한 후 2005년 새롭게 재창단한 극단 에파타가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청각장애인(농인) 배우와 청인배우가 함께 출연하여 수어와 음성 대사로 극을 이끌며 메시지를 전한다. 여기에 한국의 소리(창)와 춤을 더해 흥을 돋우어 남녀노소,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당극 형식으로 공연이 펼쳐진다.

- 작/김상열
- 연출/이중근

꿈의 오케스트라 '부산'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9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동구문화원 461-0325



엘 시스테마의 정신을 계승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음악교육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부산'의 7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7년 창단한 꿈의 오케스트라 '부산'은 현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 호른, 타악기를 함께 연습하고 연주함으로써 서로 배려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 '부산'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향상음악회, 부산차이나타운 문화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시민과 만나왔다.

- 지휘/박현영

그림읽어주는베토벤 세계명작극장 시리즈
플란다스의 개

일 시 |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 02-766-7623



클래식 큐레이터의 해설과 명화, 그리고 음악이 함께하는 그림읽어주는 베토벤의 세계명작극장 시리즈 '플란다스의 개'. 플란다스 지방의 가난한 소년 네로와 그의 개 파트라슈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이번 무

대에서는 화가가 꿈이었던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루벤스의 성당 벽화와 작품들, 그리고 영상과 함께하는 일미터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 클래식큐레이터/조숙현
- 연출/임용순 • 지휘/김다솔
- 연주/일미터클래식앙상블

음악

2023 재즈 앳 영화의전당

일 시 | 12월 1일(금)-31일(일) 평일·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7만7천원,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재)영화의전당이 2023년을 마무리하며 마련하는 송년무대 '2023 재즈 앳 영화의전당'.

1일(금) The Dreamer, Dream Land '루소&뮤직 콘서트'

꿈꾸는 화가 '앙리 루소'의 작품을 재즈&월드뮤직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13일(수) 디즈니 인 재즈 콘서트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를 재즈로 즐길 수 있는 무대.

자유롭고 즉흥적인 재즈 편곡으로 '겨울왕국', '알라딘', '토이스토리', '라이온킹', 'UP', '미녀와 야수', '코코' 등 디즈니의 명곡들을 최정상급 재즈 아티스트들의 수준높은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14일(목) 스누피 재즈 크리스마스

우리에게는 스누피로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피너츠' OST의 곡들과 크리스마스 재즈넘버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

15일(금) 송영주 재즈 퀸텟 'JAZZ MEETS OPERA'



대중음악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송영주 재즈 퀸텟이 우리에게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를 재즈로 재해석하여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

• 스페셜게스트/박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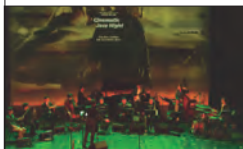
16일(토) 쇼팽 in 뉴욕 '클래식컬 재즈 나잇'

클래식 명곡을 재즈 사운드로 만나는 최고의 무대로, 2022년 2월 초연 후 지금까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에서 7차례 전석 매진시키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 드럼/오종대 • 베이스/송미호
- 피아노/김주현, 안인모
- 기타/박윤우 • 아코디언/데이브 유
- 색소폰, 클라리넷/여현우
- 바이올린/박재준, 이희명

- 비올라/맹진영 • 첼로/채훈선
- 콘서트 가이드/안인모, 데이브니어

17일(일) 시네마틱 재즈 나잇 with 재즈오케스트라



재즈 오케스트라로 만나는 필름 콘서트.

시대를 초월한 명화 속 OST에서부터 크리스마스의 감동을 안은 재즈 명곡까지 국내 최고의 재즈 편곡자이자 지휘자, 트럼페터로 활동하는 오재철이 이끄는 재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2023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보컬음반상을 수상한 김유진이 출연한다.

- 지휘, 플루겔혼/오재철 • 보컬/김유진
- 드럼/김영진 • 베이스/송미호
- 피아노/윤원경 • 기타/조영민
- 색소폰/이용석, 여현우
- 클라리넷/서효상 • 플루트/신진섭
- 바이올린/박동석, 권혁민
- 비올라/맹진영 • 첼로/채훈선

29일(금) 이봉근&신승태&프렐류드 'JAZZ 소리와 습니다'

우리의 소리와 재즈를 결합한 퓨전무대. 전통의 울타리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소리꾼 이봉근과 재치 있는 입담과 표현력이 돋보이는 소리꾼 신승태, 그리고 재즈계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대표 재즈밴드 프렐류드가 이색적인 재즈의 세계로 안내한다.

- 리더·피아노/고희안 • 베이스/최진배
- 색소폰/리차드 로 • 드럼/한웅민

30일(토) 아이비&조윤성 밴드 'ADDICTED JAZZ'

매혹적이면서 고혹적인 디바 아이비와 재즈의 자유로움이 넘쳐 흐르는 조윤성 밴드의 무대.

- 피아노·편곡/조윤성
- 트럼펫/Joep Van Rhijn
- 일렉베이스/박제신 • 드럼/신동진

31일(일) 윤복희&이정식 밴드 '시작,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음악계 대부들의 무대로, 뮤지컬계와 가요계의 변화를 주도한 가수 윤복희와 재즈 1세대로 재즈의 부흥을 일으킨 색소포니스트 이정식 밴드가 정통 재즈무대를 선사한다.

- 색소폰/이정식
- 피아노/양준호
- 드럼/이길중
- 베이스/최세열



박지연 피아노 리사이틀 라흐마니노프의 회상

일 시 | 12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화려한 테크닉과 감수성으로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자'로 호평받는 피아니스트 박지연 리사이틀 중앙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도미, 클리블랜드 음악원, 미시건 주립대학교 수학 당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십 차례

독주회 및 듀오, 오케스트라 객원으로 폭넓은 활동을 가져온 박지연은 귀국 후, 2021년 독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만의 열정적인 연주와 다양한 표현력으로 위대한 음악가인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세계를 들려준다.

- 첼로/김하늘 • 해설/서경희

헤르츠뮤직 책 먹는 여우의 검은 유령

일 시 | 12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동화작가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책 먹는 여우' 시리즈에 클래식 음악을 접목시킨 가족음악회 '책 먹는 여우의 검은 유령'.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동화를 바탕으로 클래식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무대

에서는 실력있는 전문연주자들과 배우들이 출연, 비제의 '아름의 여인' 중 '파랑뿔'을 비롯해 슈미트, 드뷔시, 만시니 등 다채로운 연주곡으로 어린이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이끈다.

- 대표/전국영 • 예술감독/임상호
- 플루트/정혜란 • 비올라/이현영
- 첼로/윤보람 • 피아노/이수지, 홍샘
- 배우/홍누리, 강지연, 박지수, 신동우

게네랄파우제 12월 공연

일 시 | 평일 오후 8:00, 2일(토) 오후 8:00,
9일(토) 오후 6:00, 16일(토) · 23일(토)
오후 3:00, 7:00, 30일(토) 오후 7:00
게네랄파우제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12월 무대.



1일(금) 오후 8:00 Standard Jazz Night with Saxophone
색소폰이 가미된 스탠다드 재즈 음악을 들려주는 김승모 콰텟의 무대.

- 색소폰/김승모 • 기타/최성준
- 베이스/허진호 • 드럼/황준혁



2일(토) 오후 8:00 Groovin'
특유의 현란한 기타연주와 함께 재즈 그루브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이달현 트리오의 무대.

- 기타/이달현
- 베이스/박지원 • 드럼/윤혁성

7일(목) 오후 8:00 월간 민주신 '토크 콘서트 Vol.1-재즈 기타리스트 김대호'

게네랄파우제와 재즈피아니스트 민주신이 매월 한차례 진행하는 '월간 민주신' 12월 무대.

'월간 민주신'은 매월 새로운 동료 뮤지션을 섭외, 음악을 직접 소개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로, 이번 무대에서는 재즈 기타리스트 김대호가 함께 한다.

- 피아노/민주신 • 기타/김대호



8일(금) 오후 8:00 It's christmas once again
활기차면서도 청량한 재즈를 선보이는 강해인 콰텟이 크리스마스사와 어울리는 다양한 음악들을 들려준다.

- 피아노/강해인 • 보컬/정세미
- 베이스/심규환 • 드럼/홍영호



9일(토) 오후 6:00 Memories of last winter 아티스떼

바이올리니스트 이예빈, 첼리스트 신승업, 플루티스트 조영찬과 피아니스트 김성주, 이지은으로 구성된 아티스떼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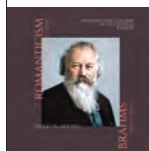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아티스떼는 이번 무대에서 그리그와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를 들려준다. 아티스떼는 '예술가들'이라는 뜻



15일(금) 오후 8:00 심리아, 음악하고 놀자 '비움'
게네랄파우제와 재즈그룹 허쉬밴드가 공동기획한 '심리아, 음악하고 놀자' 시리즈.

허쉬밴드(리더 허여정)와 심리상담가의 콜라보로 이루어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움'이라는 주제로, 각자 마음에 '비울자리', 즉 '여백'을 만들어 주는 시간을 선사한다.

- 피아노/민주신 • 베이스/박재훈
- 드럼/허여정 • 스토리, 아코디나/김성영



16일(토) 오후 3:00 유지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Romanticism
한달에 한 번 토요일 낮에 열리는 게네랄파우제의 마티네

콘서트. 12월 무대에서는 콘서트 가이드이자 클라리네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지훈이 외로움과 고독 너머의 브람스와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들려준다.

- 피아노/이혜경



16일(토) 오후 7:00 White christmas

부산의 재즈 1세대인 최은아 트리오가 준비한 재즈 무대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겨울 분위기와 따스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보컬/최은아 • 피아노/장세연
- 베이스/신세영

22일(금) 오후 8:00 누구나 아는 클래식

다양한 관악곡들을 소개하기 위해 결성된 앙상블 팀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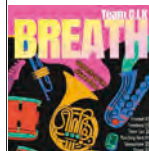
연말을 맞아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가요로 관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간다.

- 플루트/박은주 • 오보에/문동원
- 클라리넷/조가진 • 피아노/강민희
- 편곡/박민음

23일(토) 오후 3:00, 7:00 Christmas Fireside

도담앙상블 창단 4주년 축하 공연이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주는 'Christmas Fireside'.

- 플루트/조다은 • 클라리넷/강철주
- 바이올린/김민화 • 첼로/정해주
- 피아노/손안나 • 해설/강유



30일(토) 오후 7:00 Breath

'Customer is King'이라는 문구 아래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인 Team C.I.K가 컨템포러리

재즈에서부터 대중음악, 팝, EDM까지 금관악기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아르스 콰텟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드보르자크

일 시 | 12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르스 콰텟 442-1941



신라대학교 조현선 교수를 리더로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 콰텟의 무대.

지난 2001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 MBC 창사기념 '목요음악회' 초청연주, (사)부산음

악협회 주최 '실내악 축제', 부산시립미술관 초청연주, 영화의전당 실내악축제 '두레라움' 초청연주 부산문화회관 챔페스티벌 초청연주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체코의 대표 작곡가인 드보르자크의 현악오중주 제2번과 피아노오중주 제2번을 들려준다.

- 협연/조현선(피아노, 경성대 교수)
- 게스트/우현수(더블베이스)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골든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골든심포니오케스트라 010-5823-8565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골든심포니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해 9월 결성된 후 12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신생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골든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올해 5월 열린 제1회

정기연주회에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답지 않은 수준높은 연주를 선사하여 관객과 음악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상임지휘자 권나은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관객들이 오케스트라 음악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OST 및 뮤지컬음악을 들려주며, 드라마틱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목소리의 테너 김유한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12월 스페이스움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움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 움의 살롱음악회.

1일(제524회) Love in Serenade

다양한 매력을 지닌 보컬들로 구성된 세레나데의 무대.

세레나데는 지난 2014년 창단된 후 600회 이상의 무대를 통해 대중가요, 뮤지컬 넘버,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과 함께 소통해오고 있다.

- 출연/이정은, 김정연, 이한세, 허석

8일(제525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소프라노 배수진과 테너 윤석, 바이올리니스트 조완수, 첼리스트 박효진, 피아니스트 이희연 등 지역의 예술가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마련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15일(제526회) 김진희&강대현 피아노 듀오 콘서트

부산현대음악양상블 단원이자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을 대표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진희와 부산현대음악양상블 단원, 인제피아노소사이어티 대표로 있는 피아니스트 강대현의 듀오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송년에 어울리는 다양한 곡을 피아노 듀오 연주로 들려준다.



22일(제527회) 허미경교수의 인문과 예술 교양 렉처시리즈 - 그리스 로마 신화 편

크리스마스에 즐기는 음악과 신화 이야기.

인제대학교 허미경 교수가 진행하는 렉처콘서트로, 1부 '클래식 속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어 2부에서는 겨울을 노래한 가곡과 크리스마스 캐롤로 송년무대를 선사한다.

- 소프라노/허미경, 박연경, 이진영, 장새롬
- 메조소프라노/우요나
- 피아노/이소영
- 합창/이승은, 당차아오링, 류샤오강, 호루루, 배우미, 이소민
- 게스트/우현수(더블베이스)

2023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 지브리, 재즈를 만나다

일 시 | 12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VIP석 7만7천원,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문 의 | 지누락엔터테인먼트
070-8680-8477



한국인이 사랑하는 일본의 재즈 트리오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지브리, 재즈를 만나다'.

카즈미 타테이시(피아노), 시노부 사토(더블베이스), 마오 스키즈(타악기)로 구성된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지브리 애니메이션

이션 주제곡을 재즈로 편곡, 연주한 두 장의 앨범이 일본 아마존 재즈 차트 1위에 오르고 일본 내 발매기념 공연이 전석 매진되는 등 국내외에서 크게 히트하며 주목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특유의 유쾌한 힐링 재즈로 재탄생한 스탠다드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 해금/김단비

2023 을숙도 예술공감

일 시 | 12월 5일(화), 12일(화), 19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5814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을숙도 예술공감 2023년 마지막 무대.

5일(제39회) 탈피 '기존의 틀을 벗어나다'

소리 김아름, 피리 여강, 타악 김인균, 해금 조희

규, 건반 박수현, 아쟁 최리디아로 구성된 탈피(TALPI)의 무대.

'탈피'는 각자의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음악적 성장이 모여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2일(제40회) Grow4Music 'The Time Of Music'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전공한 전문음악인들이 모인 청년예술단체로, 여러 장르를 아우르

며 음악적인 화합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로 모인 Grow4Music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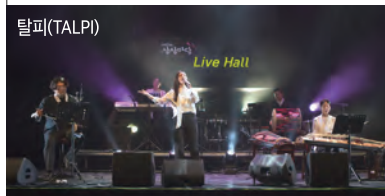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서로 다른 시대의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시련과 고민속에서 한 인간으로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보여준다.

19일(제41회) 프로이데 '다채다감(多彩多感)'

다양한 시대의 듀오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복합융합예술을 선보이는 프로이데의 무대.

프로이데는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 학위 피아니스트들과 음악교육활동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2016년 창단 이후 창작 뮤지 스토리 콘서트 및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음악들과 캐롤음악을 들려준다.



제53회 짜장콘서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일 시 | 12월 9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청소년 및 10명 이상 단체 50% 할인)

문 의 | 음악풍경 기획실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김창욱)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특집무대 '크리스마스 콘서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척박한 시대,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고단한 우리 이웃들의 삶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자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양승엽, 박성백, 소프라노 정혜리, 신하람이 출연, 널리 알려진 세계 명가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공연 후 최초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며, 사전 예약없이 누구나 당일 현장에서 1천원만 내면 경품 추첨권과 교환할 수 있다.

- 피아노/정은희 • 진행/이진이

국립부경대학교와 함께하는 BSO솔로이스츠 비발디&피아졸라

일 시 | 12월 8일 금요일 오후 4:00
국립부경대학교 대학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BSO 621-4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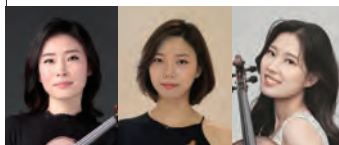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가 창단 30주년을 기념,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음악으로 보답하고자 마련한 특별한 무대' 국립부경대학교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BSO 예술감독이자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인 오충근이 지휘하고 월간객석 편집장을 역임하고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는 류태형의 해설, 그리고 BSO 수석 및 부수석으로 구성된 BSO솔로이스츠가 송년에 어울리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은 그동안 베를린심포니오케스트라,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러시아 국립에르미타주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우수 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독일 베를린필

하모니홀,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체코 프라하 스페타나홀 등 세계적인 연주홀에 선 바 있다. KNN방송교향악단,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초대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제48대 난파음악상,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명곡인 비발디의 '사계'에 이어 탕고 특유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들려준다. 바이올린 협연은 미국 맨해튼음대 한국인 최초 바이올린 박사이자 BSO 악장인 김주영을 비롯해 진혜빈, 박은경, 한유진, 진건혜, 오근영, 황재윤이 각 악장별로 맡아 저마다의 색깔있는 연주를 들려준다.

- 지휘, 예술감독/오충근(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
- 협연/김주영(악장), 박은경·진혜빈(수석), 한유진·진건혜(부수석), 오근영·황재윤(단원)
- 연주/BSO솔로이스츠
- 해설/류태형(음악평론가)



웰니스와 함께하는 KNN방송교향악단 제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예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사)KNN방송교향악단
010-7990-9568



2016년 창단 후 부산, 경남지역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와 인재육성의 중심이 되어온 KNN방송교향악단 정기연주회. KNN방송교향악단은 매년 자체 기획하는 정기연주회와 유명 아티스트 초청연주회를 통해 국내외 수준높은 아티스트들을 소개해왔으며, 부산·경남지역을 순회하는 더 클래식 경남과 시네마음악회, 시민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희태 상임지휘자가 지휘하고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권이 협연한다.

제496회 가람초청음악회 2023 폴리포니 기타듀오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6:0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전석 2만원(네이버 예약)
문의 | 가람아트홀 010-5489-2913



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구성된 폴리포니 기타듀오 초청 제496회 가람초청음악회. 폴리포니 기타듀오는 지난 2005년 결성 후 클래식, 영화음악, 국악, 남미 무곡 등 음악의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클래식 기타 이중주 팀으로,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윤이상국제음악제 프린지에 참가하여 세 차례 Rising Star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반도네오니스트 김종완과 함께 클래식 기타 듀엣의 대표작인 결작으로 알려진 소리의 'L'Encouragement'를 비롯해 클래식한 무드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2023 굿바이 송년

일 시 | 12월 11일(월), 14일(목) 오후 7: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예술회관 631-1377, www.bsart.or.kr



부산예술회관 기획으로 마련되는 송년무대. 11일에는 '와락심포니'의 에너지 넘치는 합주를 시작으로 '아트프로젝트 옴로'의 무용과 '부산국악협회 가야금연주단'의 가야금연주, 미어브라스앙상블이 선사하는 화려한 금관앙상블과 이색적이고 화려한 '빈체로 댄스 포츠', 그리고 서양과 동양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월드뮤직을 새롭게 재해석한 '동백유랑단'의 앙상블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14일에는 '부산연극협회'의 뮤지컬 갈라쇼를 시작으로 부산아이디발레단, 한국총프로젝트 가마, 팟 댄스 프로젝트, NS밴드의 무대가 차례로 이어지면서 송년의 분위기를 더해준다.

2023년 구문문화예술회관 활성화 지원사업 12월의 블랜딩 노트 CLASSY JAZZ

일 시 |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2023년을 마무리하며 송년의 아쉬움을 클래식과 재즈로 달래주는 12월의 블랜딩 노트 'CLASSY JAZZ'. 첼리스트 정희보를 주축으로 창단된 현악4중주단 '클래식라디오'와 라틴 재즈라는 독특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라틴 퀸트 '로스펜타솔레스'가 출연, 클래식과 재즈, 라틴음악을 블랜딩한, 장르의 경계를 넓히는 새롭고 독특한 사운드의 음악을 선사한다.

- 출연/재즈피아니스트 조수임, 첼리스트 정희보, 보컬 벨라, 트럼펫터 김일환, 클래식라디오, 로스펜타솔레스
- Arranger/남현수

12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6일·20일 공연 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상설무대 '금정수요음악회' 12월 무대.

13일(제838회) 세 남자가 들려주는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나그네' with

샌드아트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를 테너 백예훈과 바리톤 김경한의 듀엣으로 들려주며, 피아니스트 석주안의 연주에 맞추어 노선이의 샌드아트가 펼쳐진다.

27일(제839회) 제7회 최경철 가야금 독주회 '鉉(현)으로 빛은, 주제의 변용'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야금 레퍼토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새로운 가야금 독주곡들을 발표하는 무대.

제92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소향과 함께하는 국향만리

일 시 |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저물어가는 2023년을 한 해를 아쉬워하며 을숙도문화회관이 마련한 을숙도 명품콘서트 송년무대.

이 시대 최고 가창력의 디바 '소향'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대표 성악가 김지호, 소프라노 이진영의 화려한 오페라 아

리아와 더불어 사회적 협동조합 문화공장의 흥겨운 소고춤과 버나놀이, 사자춤이 펼쳐진다.

가수 소향은 한국 플레이 오픈 애국가 가창, NBA 미국국가 가창과 더불어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 한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 공연 등 그만의 독보적인 보컬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제9회 을숙도 청년예술공감

일 시 | 12월 14일(목), 21일(목)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5814



을숙도문화회관이 마련하는 '부산예술 파이팅 프로젝트' 무대.

14일(제9회) Ensemble Um-san의 'Piazzolla' 각 작곡자들의 특성과 의도를 깊이 파악하여 연주·작곡하는 단체로, 김우진(작곡), 석나경(바이올린), 이나영(피아노), 황승희(첼로)로 구성된 앙상블 음산(Um-san)의 무대. 20세기 아르헨티나의 탱고 작곡가 피아졸라 특유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주옥같은 탱고곡을 들려준다.

21일(제10회) 브라스!브라스!브라스!

젊고 패기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브이브라스의 흥겨운 무대.

- 튜바/김정훈 • 트럼펫/박준호, 위대한
- 호른/최희진 • 트럼본/김정현
- 타악기/김영훈

을숙도문화회관 굿모닝콘서트 '무미건조와 함께하는 피아노 브런치'

일 시 |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5814



자연속 정원에 자리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향긋한 모닝커피와 함께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는 굿모닝콘서트 12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경성대학교 조현선 교수와 사제 시간인 유영욱, 김병기, 육은화, 유재웅 등 5명의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피아노앙상블 '무미건조(舞美鍵趙)'가 연말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무미건조'는 탄탄한 기교와 새로운 음악으로 청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모차르트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주옥같은 작품을 통해 피아노 음악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010-6577-1406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문화 소외 계층들에게 음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온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2009년 새롭게 출범한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 사랑 나눔 연주회, 열린 음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음악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단체명인 '라온제나'는 '기쁜 나, 즐거운 우리'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슈베르트/미완성 교향곡
 리리이 앤더슨/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수곡

Joyful Story 세 번째 이야기 Music+Dance

일 시 |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JS연구소 010-6572-2293



활발한 교육활동과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 예술인 및 음악교사로 구성된 JS연구소가 마련한 'Joyful Story 세 번째 이야기'. 지난 2020년 창단한 JS연구소는 2021년 첫 정기 연주회를 가진 후 그동안 무대 위 연주자와 청중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연주와 교육 및 예술 현장의 예술가들을 위한 세미나, 음악교육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 피아졸라, 드보르작, 하차투리안, 그리그, 프로코피예프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Solo 및 4Hands로 들려준다.

- 연주/이서현, 정다연, 최수진, 지현화, 이승임, 이가연, 이수현, 신유정

한국기업렌탈과 함께 하는 콰르텟 BCMS with Friends Winter Story

일 시 | 12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BCMS 조혜운 010-6295-8552



부산의 실내악문화를 주도하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예술감독 김동욱)의 리더와 수석들로 구성된 콰르텟 BCMS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교수이자 피아니스트 이윤수가 연주하는 리스트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 독주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실내악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 바이올린/김동욱, 조혜운, 김나영, 김금주, 김유담
- 비올라/최영식, 배은진
- 첼로/홍승아, 이일세, 윤주연
- 피아노/이윤수, 박지은

D.U Chamber Orchestra 제2회 정기연주회 고독

일 시 | 12월 17일 일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D.U Chamber Orchestra
 010-7450-1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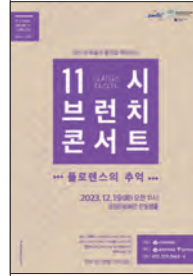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출신의 선후배들로 결성된 D.U Chamber Orchestra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D.U'는 'Dynamic Union'이라는 뜻으로, 열정 넘치는 청년 음악가들과 연합하여 음악의 모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구하며 대중들에게 음악을 소개하고 널리 알리고 있다.

지휘자 곽세언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명예교수이자 부산트리오, 퓨전앙상블, 비르투오조 앙상블 리더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D.U Chamber Orchestra 단원이자 Simpatia 단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석주안의 협연으로 슈베르트, 비탈리, 쇼팽, 브람스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플로렌스의 추억

일 시 |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금정문화회관이 마련하는 11시 브런치콘서트 2023년 마지막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한경진, 윤염광, 비올리스트 문명환, 배은진, 첼리스트 최지호, 이윤하가 출연, 현악6중주 사상 최고의 명곡으로 불리는

브람스의 '현악6중주 제1번' 2악장과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 차이콥스키가 그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조국인 러시아를 그리워하며 작곡한 '플로렌스의 추억'을 들려준다.

특히 연주와 더불어 워너클래식에서 마케팅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클래식 교양강의, 콘서트 MC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악 큐레이터 이상민의 해설로 그 깊이를 더한다.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190회 한밤의 유U:콘서트 오충근&BSO 솔로이스츠

일 시 |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역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국제신문 500-5222



오전에 열리는 마티네콘서트의 호시라 할 수 있는 '한낮의 유U:콘서트'를 송년을 맞아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저녁공연으로 마련한 '한밤의 유U: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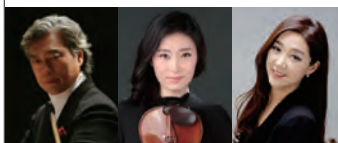
'한낮의 유U:콘서트'는 2006년 4월 18일, '한낮의 휴U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부산의 클래식음악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듬해 5월부터는 일상에 지친 '당신(You)'을 위해 마련한 '독특하고(Unique)', '넉넉한(裕)' 음악회라는 뜻을 담아 '한낮의 유U:콘서트'로 타이틀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교향악단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는 첫 회부터 30회(2008년 12월 23일)까지 3년간 콘서트를 이끔여 3만 9천여 명의 관객과 함께 부산의 음악 역사를 만든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BSO 오충근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BSO솔로이스츠의 연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발디 '사계'를 비롯해 스비리도프 '눈보라', 앤더슨 '크리스마스 캐롤' 등 다채로운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BSO솔로이스츠는 BSO 악장인 김주영을 비롯한 우수한 실력을 지닌 BSO의 수석, 부수석 단원들로 구성된 연주단체로,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한 연주와 풍성한 레퍼토리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국립부산대학교 석좌교수)
- 협연/김주영, 박은경, 진혜민, 한유진
- 연주/BSO 솔로이스츠(리더 김주영)
- 진행/손지현(아나운서)



민중호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민중호 010-6388-5290



금정문화회관 주최 '2022년, 신인을 주목하라'로 데뷔한 후 'La. Duo'의 멤버, 'Re:born 문화예술단'의 음악코치로 활동 중인 신인 피아니스트 민중호의 첫 번째 독주회.

민중호는 동아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수차례의 조인트 리사이틀, La. Duo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 등을 통해 관객과 만나며 실력을 쌓아왔다.

이번 무대에서 민중호는 클라라에 대한 슈만의 애환과 사랑이 담긴 '환상곡 다장조 작품 17'과 수많은 음으로 그려내는 라흐마니노프 '화학적 연습곡 작품 39'를 들려준다.

을숙도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조성모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음악회

일 시 |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해 을숙도문화회관이 마련한 특별무대. 특히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열리는 이번 무대는 국내 최정상급 발라드 가수 조성모와 함께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음악회로 꾸며진다.

이 외에도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다양한 곡들로 분위기를 북돋우며, 소프라노 왕기현, 메조소프라노 송혜은, 테너 이우정, 바리톤 베이스 박순기와 성악전공자 20여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환희의 송가(베토벤 교향곡 제9번) 로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황지원 피리 독주회

일 시 |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황지원 010-5206-7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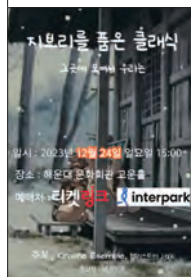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비상임단원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황지원 피리 독주회.

황지원은 제47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기악 일반부, 제41회 한국정악원 '전국신인 국악연주회' 선정 및 공연, 제41회경주전국국악대제전 관악 일반부 등 다수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상량산 풀이, 서용석류 피리산조 등 다양한 곡을 통해 피리가 가진 매력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상량산 풀이, 서용석류 피리산조, 동남풍, Chants of Rain, 호적 허튼가락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그곳에 모여서 우리는

일 시 | 12월 24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3만원(만 5세 이상 관람)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매월 마련하는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무대.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OST를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Kranse Ensemble 리더, 첼리스트의 서재 공동대표, 어연히(어디서든 '연주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대표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로와 피아니스트 박민희, 아코디언리스트 심성훈, 바이올리니스트 이슬기가 대중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브리 대표곡과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 영화 OST, 팝송을 들려준다.

- 첼로/이명로 • 피아노/박민희
- 아코디언/심성훈 • 바이올린 이슬기

첼리스트 이명로 리사이틀 클래식, 음악의 근본(根本)

일 시 |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만 5세이상 관람)
 문 의 | 어연히 010-5758-5807



Kranse Ensemble 리더, 첼리스트의 서재 공동대표, 어연히(어디서든 '연주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대표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로 독주회.

체코 프라하 국립음악원에 전액국비장학생으로 입학했으며,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중인 이명로는 2018년부터 11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듀오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두 곡의 첼로협주곡을 남긴 하이든과 그 자신이 뛰어난 첼리스트였던 보헤미아 출신의 작곡가 포퍼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박지현

2023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12월 일본영화 OST 콘서트

일 시 |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부산영화음악협회 대표이자 부산 출신의 영화음악감독인 손한묵이 호스트가 되어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하는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올해 마지막 무대에서는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영화 속 순간들을 두레라움 하우스 밴드의 연주로 소개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일본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담긴 영상과 진잔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특별한 무대로,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일본영화 '러브레터', '냉정과 열정 사이', '전장의 메리크리스마스' 속 명장면과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 OST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연극

연극 난중일기에는 없다

일 시 | 9월 13일(수)-2024년 1월 1일(월)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영웅 이순신의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과 독특한 발상으로 실존 인물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연극 '난중일기에는 없다'.

이 작품에서 역사 속 영웅 이순신은 온데간데없다. 살기위해 버둥거리는 가 일본 무사 사스케에게 납치되고 고무마 하나에 치졸하게 목숨을 구걸하기까지 한다.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육두문자를 남발하고, 후술근한 옆집 아저씨 같이 삶의 넋두리도 내뱉는다.

이번 작품은 난중일기에는 없는 3일간 이순신의 행적을 통해 영웅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이순신 장군을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전한다.

국민연극 라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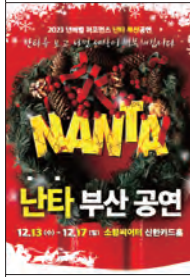
일 시 | 12월 1일(금)-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2:00, 5:00, 8: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4만원, 2층 3만원(중학생 이상 관람)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5



1998년 초연 후 지금까지 42,000여 회 공연, 630만 명 관람으로 '국민연극'이라 불리는 코미디극 '라이어' 1탄. 영국 워블던에 사는 메리와 스트리트햄에 사는 바바라, 그리고 사랑하는 두 여인을 두고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바쁘게 생활하는 택시운전사 존 스미스. 그가 짜놓은 완벽한 스케줄은 가벼운 강도사건에 휘말리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2004년 영화로도 제작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영국 '라이어'는 영국의 인기 극작가 레이 쿠니의 대표작으로, 숨 돌릴 틈 없는 빠른 전개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 숨 막히는 반전을 거듭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아왔다.

난타 퍼포먼스 난타

일 시 | 12월 13일(수)-1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36개월이
상 관람)
문 의 | 파워엔터테인먼트(주) 1660-3570



한국을 넘어 세계가 감동한 '난타' 부산공연. '난타'는 한국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으로, 지난 1997년 초연부터 폭발적 반응으로 현재까지 한국 공연 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칼과 도마 등의 주방기구가 멋진 악기로 승화되어 만들어내는 화려한 연주와 한국 전통춤과 가락이 어우러진 삼고무, 역동적인 드럼연주로 국적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볼 수 있는 파워풀한 공연이다.

뮤지컬 삼총사

일 시 | 12월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2:00,
6:30, 25일 월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5만원, OP석 14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한류뮤지컬의 전설 '삼총사' 부산공연. 뒤마의 소설을 원작으로 2009년 초연 이후 뮤지컬계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삼총사'는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왕실의 총사가 되길 꿈꾸는 달타냥과 삼총사 아토스, 아라미스, 포르도스가 함께 국왕 루이 13세를 둘러싼 음모를 밝히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아홉번째 시즌을 맞이한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초연부터 함께한 배우 신성우가 연출가 강봉훈과 함께 공동 연출을 맡았으며, 청년 달타냥 역의 박장현, 펜타곤 후이, 랜, DKZ 민규를 비롯해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용

스트리트우먼파이터2 ON THE STAGE

일 시 |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00, 7:00
사직실내체육관
입장료 |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만 12세 이상 관람)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2023년 또 한번 신드롬을 일으킨 Mnet '스트리트우먼 파이터2'의 짜릿한 배틀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원밀리언, 베베, 딥앤덱, 잼 리퍼블릭, 레이디바운스, 마네킨, 츠바키, 울플러 등 매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8개 팀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단순 댄스 크루 간의 배틀에서 벗어나 관객들과 같이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무대이다. 특히 방송 직후 챌린지 붐을 일으켰던 계급 미션곡 'Smoke', 'Click Like', 'Swipe', '트윅링'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각 크루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무대들까지 애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소피아발레단 내한공연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2:00, 7: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5세 이상 관람)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유럽 정통 발레단으로 명성이 높은 소피아 발레단의 첫 부산공연. 세계 최초의 국제 발레공쿠르이자 세계 4대 발레경연대회가 열리는 발레선진국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소피아 발레단은 지난 2009년 창단 이후 고전 및 현대 작품 모두를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스위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불가리아 등 세계무대에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소피아 발레단은 크리스마스의 전령사 '호두까기 인형'을 통해 우아하고 화려한 테크닉, 최고의 예술성을 기반으로 한 정통 유럽 발레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 예술감독/오르단 크라체프

2023 와이즈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12월 24일 일요일 오후 5:00, 25일
월요일 오후 2: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만 5세
이상 관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 무대에 울러지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호두까기 인형'은 1892년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한 뒤 130년 넘게 무대에 오르고 있는 발레의 고전으로, 특히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더불어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3대 명작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무대는 2017 제49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상, 2022 제9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무용부문 최우수상 등 다양한 수상이력을 지닌 와이즈 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차별화된 연출로 연말 가족공연을 대표하는 인기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콘서트

김첼로 밴드 초청공연
JAZZ ON THE BREEZE

일 시 |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TV 예능프로그램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에 출연하여 시원시원한 고음과 연주로 박수를 받았던 김첼로가 이끄는 김첼로밴드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보컬 송인(이예은)과 기타리스트 송지현이 함께 한다.

자우림 단독 콘서트

일 시 | 12월 25일 월요일 오후 6:00
백스코 오디토리움
문의 | VIP석 14만3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주)월드쇼마켓 1566-5490

행사

김옥균의 클래식뮤직 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음악 연주회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2개월 10만원
문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 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음악 감상과 더불어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연주회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코렐리 '크리스마스 콘체로토'
앙드레 류 'Home For Christmas Concert' 실황
생상스 '오르간교향곡'
한국가곡특집-이수인, 흥난파 편

영화음악 작곡가 '한스 짐머' 콘서트 실황
베토벤 9번 교향곡 베를린 장벽철거 콘서트 실황
월드뮤직특집-그리스음악 편

제190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콘서트 크리스마스, 송년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0149

- 시낭송/김영옥 시인 외 회원&초대시인
- 바리톤/한성권, 배용
- 클래식기타/고충진

문화와 예술로 만나는 부산
12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1일(금)·15일(금) 오후 2:00 **우동불**
4일(월)·18일(월) 오후 7:00, 11일(월)
오후 5:00 **시네바움**
문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1일(금), 15일(금) 오후 2:00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 장소는 우동불(백산기념관 앞)
4일(월) 오후 7:00 영화로 만나는 다(茶)와 하이쿠 미학 영화, 리큐에게 물어라

- 강사/안수현(부산가톨릭대 인문학 연구소 연구위원)
- 11일(월) 오후 5:00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벨 에포크와 프루스트, 그리고 마들렌
- 강사/함정임(소설가, 동아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18일(월) 오후 7:00 **우리의 소리, 정가(正歌): 가곡, 가사, 시조**를 아시나요?
- 강사/문금자(부산정가회 대표)

12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금요일·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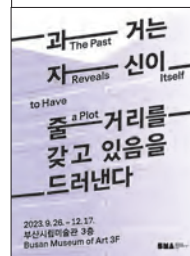
차이콥스키 특집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에프게니 오네긴 (1일~2일), 스페이드 여왕 (8일~9일), 올란타&호두까기인형(15일~16일), 라보엠(22일~23일, 크리스마스 특집), 박쥐(29일~30일, 송년특집)
콘서트/관현악 서곡, 교향곡 제4번·제5번(4일, 9일), 백조의 호수 모음곡, 피아노협주곡 제1번, 교향곡 제6번(11일, 16일), 교향적 환상곡, 장엄서곡 1812, 바이올린 협주곡 (18일, 23일), 바흐 마태수난곡(25일, 30일, 크리스마스 특집)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과거는 자신이 즐거리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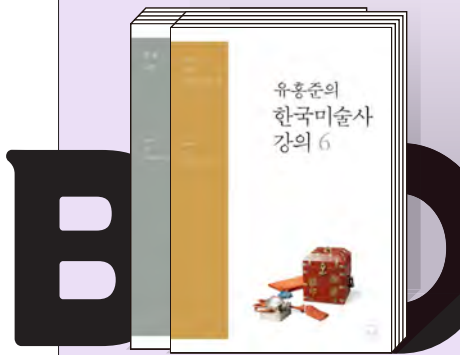
일 시 | 9월 26일(화)~12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0507-1404-2602



부산시립미술관이 내년 분관 개보수공사를 앞두고 부산시립미술관의 25년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한 기획전. 1980~90년대 국제화, 지방분권화와 같은 시대적 전환과 맞물려 전개된 시립미술관 건립 과정을 돌아보고 지역미술관의 역할과 세계 유명작가 전시 유치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주식회사 홀라웨이브 디스트릭트7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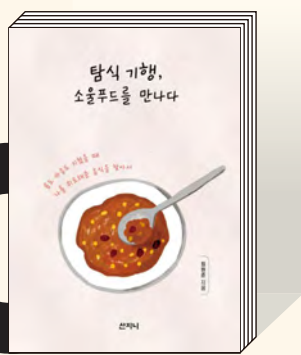
일 시 | 11월 27일(월)~12월 3일(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3,4층 전시실
문의 | 부산예술회관 631-1377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5, 6

유홍준 지음 / 놀와
제5권 2만 6천 원, 제6권 3만 4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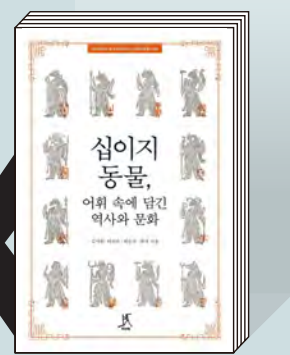
2010년 제1권 '선사, 삼국, 발해'편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가 제5권과 제6권의 동시 출간으로 13년 만에 완간됐다. 시리즈 6권을 모두 합치면 2,500쪽, 2,650여 개의 도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미술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품들을 빠짐없이 실었다. 한 명의 저자가 일관된 시각으로 한국미술 전반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완간의 의미가 크다. 제5권은 '조선: 도자'. 분청사기와 백자, 도기 등 조선시대 도자 전반을 다루었다. 특히 백자는 시대별로 그 특유의 미감과 양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질박한 아름다움의 분청사기, 순백색의 등글고 어진 맛의 백자 달항아리,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구성미를 보여주는 청화백자까지 조선 도자의 진수를 빠짐없이 접할 수 있다. 제6권은 '조선: 공예, 생활·장식미술'. 조선시대 공예를 사용자 기준으로 왕실공예, 규방공예, 선비공예, 민속공예로 나누어 고유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미술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장식화, 민화 그리고 자수까지 '생활·장식미술'이란 이름으로 미술사의 체제로 편입하였다.



담식 기행, 소울푸드를 만나다

최원준 지음 / 산지니 / 2만 원

음식문화 칼럼니스트 최원준 시인이 부산·경남의 산과 들, 강과 바다에서 만난 추억과 위로의 음식을 소개한다. 소울푸드로 차려낸 푸짐한 한 상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국 곳곳을 누비며 지역의 식재료와 음식문화를 알리고, 음식인문학과 음식문화사의 대중화에 노력해 온 저자는 국제신문 '음식문화잡학사전' 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소울푸드를 이렇게 설명한다. "소울푸드는 특정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발현한 음식으로, 그 고장에서 나는 식재료를 그들 방식으로 조리해 먹되, 지역민 모두가 공유하면서 즐거이 상식(常食)하는 음식으로 정의된다. 주로 푸드 마일리지가 짧고 지역의 식재료로 조리하는 로컬푸드가 대상이 되겠다. 이들 음식은 지역의 공동체문화를 내포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음식과 함께 분류, 치부할 수가 없다. 돼지국밥, 밀면 등이 부산 소울푸드의 좋은 예가 되겠다. 통영의 불락, 김해의 뒷고기, 울산 고래고기, 하동의 재첩과 참게, 마산 통술, 언양 소머리국밥, 함안 의령 합천의 장터국밥 등 지역마다 그 지역의 식재료와 조리법 등으로 무장한 향토음식, 지역 사람들이 사랑하는 소울푸드가 있다는 이야기다." 당신의 소울푸드를 떠올려주는 책이다.



십이지 동물,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

김시현 외 지음 / 따비 / 2만 원

서로 불러 먹이를 취하는 인(仁), 싸움에 임했을 때 물러서지 않는 의(義), 의관을 바르게 쓴 예(禮), 항상 경계하며 지키는 지(智), 어김없이 때를 알리는 신(信). '인의예지신'이라는 다섯 가지 덕을 지닌 동물이 있다. 바로 '달'이다. 중국 한나라 때의 인물 한영이 쓴 '한시외전'에 전하는 내용이다. 조선 후기에 김창흠(1653~1722)은 닭의 생태와 오덕에 주목해 '닭을 읊다'라는 시를 남겼다. "오락가락 돌아다니며 부리와 발톱으로 벌레한 마리 잡아/ 굶주림 잊고 여러 새끼들에게 나누어 먹이네./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륜의 오덕을 알고 있는 듯/ 유독 자애로운 마음으로 본성을 드러내네." 신윤복의 그림 '투계도'에서도 점잖은 듯 위풍당당한 닭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록에서 동양은 예로부터 닭이 덕을 지녔다고 여겼음을 말해준다. 닭만 해도 재미있는데, 다른 십이지 동물에는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을까.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에서 펴낸 이 책은 한중일 삼국이 공유하는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인 십이지(十二支)를 상징하는 열두 동물과 관련된 어휘와 그 안에 담긴 정서, 문화를 비교해 본다. 각 문화가 공유하는 것과 차이를 알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위한 로비음악회 성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로비음악회가 지난 11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로비음악회에서는 도용복 회장을 비롯해 후원회원 및 가족 60명과 이정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부산문화회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예술단체인 '이병주 밴드'를 초청, 연말 분위기에 맞는 다채로운 재즈 공연이 펼쳐졌다.

도용복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후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개선사업을 추진, 2024년 상반기 로비 음악회에 맞춰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5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이 지역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으로서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 예술인 육성을 위해 지역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달 31일, (재)부산문화회관과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지역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의 무대가 될 '2023 대학 교향악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2023 대학 교향악축제'는 지역 예술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청년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창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부지휘자에 김경수 선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부지휘자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수석 김경수가 선임됐다.

부산대학교 국악학과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지휘 전공),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원 한국음악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경수는 제42회 부산동래 전국 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창원국악관현악단, 김해문화원 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 2024 상반기 공연프로그램(1월~6월)

예매오픈

2023년 12월 6일(수) 오후 2시

*정기회원 선오픈 12월 5일(화) 오후 2시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공연 1일 전 취소 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 마감 17시 이후 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 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4. 1-6월

January - Jun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2024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4. 1. 10.(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지휘 | 세이코 김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소프라노 | 박소영 • 바리톤 | 한규원
• 바이올린 | 한수진 • 사회 | 박찬민
※ 8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개막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의
Mozart & Mendelssohn**

문화 | 중극장 2024. 1. 5.(금)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바이올린 | 스테판 피 재키브
• 연주 | 부산체임버페스티벌오케스트라
※ 8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첼리스트 요나 김 & 발레리나 줄리아 로의
<Songs That Make US Dance>**

문화 | 중극장 2024. 1. 9.(화)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첼로 | 요나 김
• 발레리나 | 줄리아 로
• 피아노 | 이윤수
※ 8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World Stars in Busan**

문화 | 중극장 2024. 1. 12.(금)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바이올린 | 스테판 피 재키브, 대니 구
• 비올라 | 앤드류 링
• 첼로 | 요나 김 • 클라리넷 | 김윤아
※ 8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학교 실내악 축제**

문화 | 챔버홀 2024. 1. 13.(토) 5:00pm
전석 10,000원
• 출연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 8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의 토크콘서트
<별이 빛나는 부산>**

문화 | 중극장 2024. 1. 16.(화) 7:3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바이올린 | 대니 구 • 피아노 | 문재원
※ 8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Perfect Tango:
친친탱고×콰르텟 BCMS×이승민**

문화 | 챔버홀 2024. 1. 19.(금) 7:30pm
전석 20,000원
• 출연 | 친친탱고, 콰르텟 BCMS, 바리톤 이승민
※ 8세 이상 관람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폐막연주회
양상을 오프스 초청연주회**

문화 | 챔버홀 2024. 1. 20.(토) 5:0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백주영, 송지연
• 비올라 | 감성진 • 첼로 | 김민지
• 피아노 |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 8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4. 1. 27.(토), 3. 23.(토),
5. 18.(토) 5: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해설 | 바이올린 | 박소연
• 연주 | 엘 콰르텟 외
※ 5세 이상 관람



연극 <돌아온다>

문화 | 중극장 2024. 3. 1.(금)~2.(토)
금 7:30pm, 토 3: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프로듀서 | 김수로 • 예술감독 | 신영섭
• 작가 | 선옥현 • 연출 | 정범철
• 출연 | 강성진, 김수로 등
※ 14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3. 5.(화)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피아노 | 임동혁
※ 8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연광철&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3. 13.(수)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베이스 | 연광철 • 피아노 | 선우예권
※ 8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중도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6. 19.(수) 7:3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소프라노 | 황수미
• 피아노 | 안중도
※ 8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4. 8. 28.(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플루트 | 김유빈
※ 8세 이상 관람



게임음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3. 9.(토)
• 지휘 | 진솔
※ 티켓에매 추후 오픈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마티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4. 3. 15.(금), 6. 28.(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 차웅, 정주영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KNN방송교향악단
※ 8세 이상 관람



이 시대 중년들을 위한 유쾌한 위로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문화 | 중극장 2024. 4. 6.(토) 3: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작, 연출 | 김영순
• 출연 | 이홍렬, 김태향, 우상민, 김정하, 이윤미, 허운
※ 만 16세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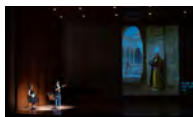
미샤 마이크 첼로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5. 8.(수) 7:3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첼로 | 미샤 마이크
• 바이올린 | 사샤 마이크
• 피아노 | 릴리 마이크
※ 8세 이상 관람



미술관 옆 콘서트홀

문화 | 중극장 2024. 5. 10.(금), 7. 19.(금),
9. 6.(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미술 해설 | 이주현
• 음악 해설 | 손지현
• 연주 |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 8세 이상 관람



창작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문화 | 대극장 2024, 5월경



부산시민회관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우리 아이 첫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홍학의 무도회

시민 | 소극장 2024. 2. 24.(토) 11:00am
전석 30,000원
※ 전 연령 관람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우리 아이 첫 클래식!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악어의 양치시간

시민 | 소극장 2024. 4. 20.(토) 11:00am
전석 30,000원
※ 전 연령 관람



역사와 함께하는 뮤지엄 판타지!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시민 | 대극장 2024. 5. 11.(토)~12.(일)
11:00am, 3:00pm
VIP 55,000원 R석 44,000원 S석 22,000원
※ 24개월 이상 관람



스튜디오 지브리의 아름다운 영상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함께 듣는 즐거운 감동!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

시민 | 대극장 2024. 6. 15.(토) 5:00pm
VIP 77,000원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8세 이상 관람



부산연극이 낳은 괴물신인 '옆집우주'의 최신작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시민 | 소극장 2024. 6. 22.(토) 3:00pm
전석 20,000원
※ 8세 이상 관람



동화의 감동과 발레의 우아함이
함상적으로 그려진 명작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시민 | 대극장 2024. 7. 12.(금) 7:30pm,
7. 13.(토) 2:00pm
VIP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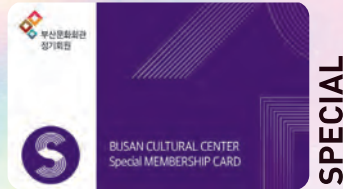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개막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의 Mozart & Mendelssohn

2024년 1월 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Songs That Make Us Dance

2024년 1월 9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World Stars in Busan

2024년 1월 1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학교 실내악 축제

2024년 1월 1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별이 빛나는 부산>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4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Perfect Tango:친친탱고×콰르텟BCMS×이승민

2024년 1월 19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2024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폐막연주회
양상블오피스 초청연주회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4년 1월 27일(토), 3월 23일(토), 5월 1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홍학의 무도회

2024년 2월 24일(토)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연극 <돌아온다>

2024년 3월 1일(금) 오후 7:30, 2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2024년 3월 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게임음악 OST 콘서트

2024년 3월 9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연광철&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2024년 3월 13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2024년 3월 15일(금), 6월 28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2024년 4월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악어의 양치시간

2024년 4월 20일(토)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미술관 옆 콘서트홀

2024년 5월 10일(금), 7월 19일(금), 9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가족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2024년 5월 11일(토)~12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어쿠스틱카페 내한공연 WITH 스튜디오 지브리 OST

2024년 6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황수미&안중도 듀오 콘서트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2024년 7월 12일(금) 오후 7:30, 7월 13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정기
임말섭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홍재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신한춘 (주)금정화은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삼강종합건설(주)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수 열가 대표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현숙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정명선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허혜영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 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 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12** DECEMBER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면세포인트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12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1월호

COUPON

COUPON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3. 12.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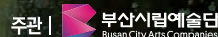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2023. 12. 21. 목 ~ 23. 토

목·금요일 19:30 토요일 15:00,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원작 | 찰스 디킨즈 재구성/작사/연출 | 김지용 작곡/편곡 | 백현주 지휘 | 아기선 안무 | 김미란, 홍승민 지도 | 백승현, 천경필, 임희준
무대디자인 | 황지선 의상디자인 | 박선미 분장디자인 | 이지원 조명디자인 | 조세현 음향디자인 | 박성수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입장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4인가족 30% 할인(관광연령 만5세 이상) 예매 및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 서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30M "7번가피자" 앞 → 문화회관 주차장 • 출발시간 | 문화회관행 | 월~금 19:00/19:30(공연 있는 날에 한함) | 대연역행 | 공연종료 후(1회 운행)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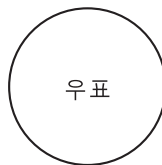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받는 사람

이름

주소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모바일 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12

DECEMBER



박재동산

원작 안톤 체홉 ANTON ПАВЛОВИЧ ЧЕХОВ
윤색/연출 이기호 제작 극연구집단 시나위

2023. 12. 22.FRI 7:30PM, 23.SAT 3: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 선정 공연

World EXPO 2030
BUSAN, KOREA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평범한 오늘 시작된
특별한 시간여행

MUSICAL

렛미플라이

Let me fly

2023. 12. 15.(금) ~ 16.(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프로듀서 홍윤경/이영찬 작/작사 조민형 작/편곡 민찬홍 연출 이대웅 안무 홍유선 음악감독 김효환 주최 (유)렛미플라이 (주)SBS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유)렛미플라이 (재)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재)부산문화회관 (재)안양문화예술재단 기획제작 프로스랩 작품개발 우란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창단50주년 기념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YEARS ANNIVERSARY

테너 양승엽

소프라노 김순영

수석지휘자 천경필

2023. 12. 16^{SAT}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R석 3천원, S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2023 Goodby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 음악회

Program

국악관현악 명곡 I
남도아리랑
작곡 백대웅

플루트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꿈꾸는 광대
작곡 황호준 / 플루트 장예지

밴드와 국악관현악
Heart of Storm
작곡 이정호 / 밴드 동양고주파

이희문과 놈놈
어허구자 - 나리소사 - 어랑브루지 - 허송세월 말어라
편곡 이동훈 / 경기민요 이희문과 놈놈(조원석, 양진수)

국악관현악 명곡 II
그대, 꽃을 피우라
작곡 손다혜



지휘 이동훈



플루트 장예지



경기민요 이희문



밴드 동양고주파

2023. 12. 12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3



OPERA GALA CONCERT



지휘 : 장윤성 해설 : 장일범 연주 :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3년 12월 6일(수)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국립오페라단 초청, 신예성악가와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OPERA GALA CONCERT